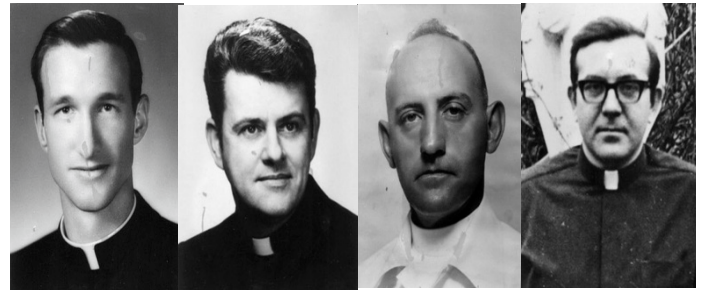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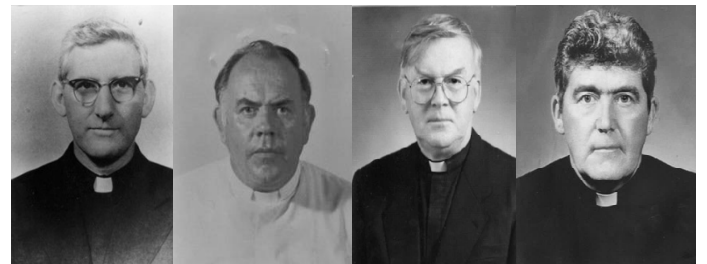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 기념 역사 학술 포럼

"제주 산남지역 복음화에 헌신한 초기 외방 선교사들의 활동"



2019. 9.21.(토) 14:00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 기념 역사 학술 포럼

[제 1 강 연]

“통합 생태의 관점에서 본
제주 교구 초기 가톨릭 선교사들의 역할”

황종열 레오 박사(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장)



“통합 생태의 관점에서 본 제주 교구 초기 가톨릭 선교사들의 역할”

항종열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jongcah@hanmail.net

“두물머리의 영으로” (cafe.daum.net/dmspirit)

하느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 ▶ 하느님의 창조계의 존재와 작용 방식:
 - ▶ 존재
끈: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우주적 가족, 곧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2015), 89항
 - ▶ 작용 방식
빛의 이중성: 입자와 파동
입자형과 파동형
 - ▶ 이주—나그네 여정
 - ▶ 대면對面—encountering—en + contra (con + tr)

통합: 하느님의 생태 안에서 자연 생태 인간 생태 사회 생태

천주교에 대한 동아시아 사회의 응답

- ▶ 마테오 리치와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등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본 입장
선교사들—문화 종교 그리스도교 중심 의식
정치적 지배형 선교자들—아편 전쟁 이후

명청기 천주교 수용자들

- ▶ 명청기 천주교 수용자들
- ▶ 선교사들
대화 중심 선교사들—마테오 리치
전면적 배격—불교 도교
선택적 적응—유교 천주 상제 인식 수용 / 제사 수용과 거부
태극 이기 만물일체 사상 배격
그리스도교 중심 선포자들—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제사 거부
서구 중심 내세주의 선교
서양 침략 세력 위세 아래 관료화—아편 전쟁 이후
지역민 존중 선교—병상 레브
- ▶ 수용자들
지식인들 사례
평민들 사례
개신교 혁명 운동—대청교 운동

명청기 천주교 비판의 맥

- ▶ 모르는 비판자들
 - 모르는 폭력자들
 - 모르는 주체적 비판자들—파사집
- ▶ 아는 비판자들
 - 아는 폭력자들
 - 아는 주체적 비판자들—강희 황제

조선의 천주교 수용자들

- ▶ 조선의 천주교 선교사들
 - 상복 선교사들
 - 수단 선교사들
 - 선교 중심
 - 용포 의식 아래 양대인형 선교사들
- ▶ 조선의 천주교 수용자들
 - 지식인들 사례
 - 교회 중심
 - 주체적 포용—세계에 열린 신앙 실천—정약용
 - 평민들 사례
 - 용교인들과 교안

조선의 천주교 비판의 맥

- ▶ 모르는 비판자들
 - 모르는 폭력자들
 - 모르는 주체적 비판자들
- ▶ 아는 비판자들
 - 아는 폭력자들
 - 아는 주체적 비판자들
 - 주체적 대안 실현자들—최제우와 동학 전통

명청과 조선의 천주교 비판이 실재가 된 역사 현장

- ▶ 1 차이나
 - 아편전쟁 1차(1840-42) 2차(1856-60) — 차이나 응답 — 의화단 봉기(1899-1901)
- ▶ 2 한국
 - 제주 선교 — 제주 민중 문화 파괴 — 제주민 응답 — 이재수 등 봉기 (1901)

단함과 열림과 주체

닫힌 선포—그리스도교 절대화
지역 종교 문화 우상화/ 대상화 식민화

열린 선포—복음적 사회 동반

닫힌 비판—이단화와 배척

열린 비판—대화 적응

닫힌 수용—우상 비판과 종속

열린 수용—창조적 토착화: 정약중에서 김수환 추기경

닫힌 주체—폭력적 왜곡—제주 교안

열린 주체—혁신적 종교사회화

교회—정약용 안중근 지학순 장일순 정호경

사회—최제우 최시형

제주 신앙 공동체 형성과 초기 선교사들

- ▶ 제주 가톨릭 교회 역사
제주인의 가톨릭 신앙 만남/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1857년
제주 본당 공동체의 탄생/ 1899년 4월 22일
서귀포 본당 분립/ 1900년 6월 12일 한눈 본당 탄생
- ▶ 제주 초기 선교사들
페네 신부(1899-1900)
김원영 신부(1899-1901)
라크루츠 신부(1900-1915)
무세 신부(1901-1902)
타케 신부(1902-1916: 본당 동반, 1916-1919: 공소 동반)

- ▶ 초기 선교사들의 사목에 대한 통합생태적 이해

제주 교안(1901)

김원영 신부-수신영약과 제주민 사랑과 폭력

라크루츠 신부-양대인에서 제주 교육의 선구자로

타케 신부-온유한 사목자의 찬양의 연대와 확장

- ▶ 맺는 성찰: 신학과 영성과 사목 패러다임 재정찰

주님의 기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의 육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로운 복음화의 길”과 일상의 거룩함

복음의 기쁨: 복음 선포와 사회 정의

찬미받으소서: 사목과 통합 생태-우주 만물의 거룩함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일상의 거룩함

세상 삶이와 통합되지 못한 신학과 영성과 사목의 극복

마테오 리치의 선택적 적응의 의의와 폭력

심상태 몬시뇰의 고백과 “전환”: 구령주의와 내세신앙 극복

예비자 교리에서 예비자들을 만나는 방식

성직자들이 평신도들과 함께 사도직을 수행하는 방식

신앙 공동체가 사회 참여를 동반하는 방식

복음화 일꾼 선교사들 기억: 감사와 기도

페네 신부(1899-1900)

김원영 신부(1899-1901)

라크루츠 신부(1900-1915)

무세 신부(1901-1902)

타케 신부(1902-1916, 1916-1919)

- ▶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열전>을 중심으로 소개
최세구(R. Jézégou) 신부 편, 최종철(하상 바오로) 번역

페네 장 샤를르(PEYNET, Jean Charles, 1873-1948) 우리말 이름: 배가록 裴嘉祿

- ▶ 몰랭Moulins교구, 알리에Allier지역, 마르실라Marcillat에서 1873년 2월 8일 출생했다. 아버지는 장 페네Jean Peynet, 어머니는 아멜리 부르디에Amélie Bourdier였다.
- ▶ 그는 1894년 2월 17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897년 3월 13일 사제품을 받았고 조선에 파견되어 그 해 5월 5일 파리를 떠났으며 7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 ▶ 1898년부터 그는 왕림에서 알릭스 신부의 임시 보좌로 사목에 참여하였다.
- ▶ 1899년 5월 그는 젊은 조선인 신부(페낭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였다)와 함께 조선 서남단 제주도로 발령 받았다.
- ▶ 제주도에 도착한 페네 신부와 동료 김 신부는 섬의 북부에 집 한 채를 사서, 주민들의 복음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페네 신부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은 그가 제주에 머문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적었다.
- ▶ 1900년 페네 신부는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수류로 보내져, 제주도로 가게 된 라크루츠Lacrouts 신부의 후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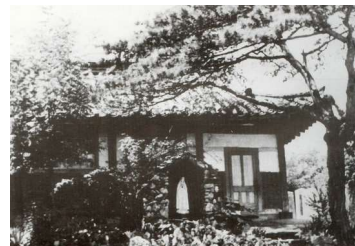
김원영(아우구스티노, 1869-1936)

- ▶ 김원영 신부는 1869년 충청도 공주(公州)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두세 신부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얻었고, 1882년 리우빌 신부에게 견진을 받았다. 견진을 받은 해에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말레이반도의 페낭 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페낭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1892년에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편입하여 학업 과정을 이어갔다. 김원영은 이종국(李鍾國), 홍병철(洪秉喆)과 함께 1899년 3월 18일에 종현(현 명동)성당에서 뮈텔(Mutel) 민덕효 주교에게 사제 서품을 받았다.
- ▶ 김원영 신부는 사제가 된 1899년 5월에 페네(Peynet, 裴嘉祿) 신부와 함께 제주도에 첫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김신부는 1900년 6월에 제주 서귀포 지역 정의군 한논(현 서흥리)에 본당 터를 잡고 한논 본당을 창설하여 사목을 펼쳤다. 그는 1901년 4월에 서울로 가서 피정을 하는 동안 제주 교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는 원하였으나 끝내 다시 제주 한논 본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 ▶ 그는 제주를 떠난 후에 다시 한눈 본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목포에서 기다리면서 당시 목포에서 데에 신부의 사목을 도운 적이 있었다. 이 시기에 1901년 지도 교안이 발생하였는데, 그는 자은도를 방문하여 지도 군수가 파견한 순교(巡校)를 붙들어서 심문을 한 예가 있다. 제주로 다시 파견되지 않고 1902년에 황해도 봉산군 은파에서 사목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그는 "성당 물건을 훔친 황관길이 교당에서 매투고 죽었다는 제보자가 있어 김원영 신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예가 있다. 위에서 본 갖등이 본당 회장 아들이 배재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에게 성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는 황해도 봉산(鳳山), 함경도 안변(安邊) 등지에서 사목하다가 1904년 경기도 행주(幸州) 본당에서 사목하였고, 1914년부터는 수원 갖등이(왕림)본당 주임신부를 겸하면서 1892년에 조셉 알릭스(韓若瑟, 1861-1913) 신부가 세운 갖등이본당 삼덕학교(三德學校)를 4년제 신명의숙(新明義塾)으로 개편하여 교육 사업에도 헌신하였다. 1927년 9월 9일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 세 명을 초청하여 한국 가톨릭 최초의 평신도 교육 기관의 전통을 이어서 교육 사업을 지속해 갔다(샬트르 100년사, 391과 1002). 1933년 황해도 신계(新溪)본당으로 발령받고 사목하던 그는 1936년 봄 사제 피정을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김신부는 쇠약해진 몸을 돌보기 위해 서울 주교관에서 머물면서 휴양하던 중 10월 7일 귀천하여 용산 성직자 묘지에 묻혔다.



무세 장 제르맹(MOUSSET, Jean Germain, 1876-1957) 우리말 이름: 문제만 文濟萬

- ▶ 리옹 Lyon 교구 생 에티엔느St Etienne 인근, 생 랑베르 쉬르 르와르St Rambert sur Loire에서 1876년 9월 19일 출생했다. 아버지는 장 무세Jean Mousset, 어머니는 클레망틴 피나텔Clémentine Pinatel이었다.
- ▶ 베리에르Verrières의 소신학교를 다녔다. 1895년 8월 1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6월 24일 사제품을 받았고 만주로 파견되어 그해 8월 1일 파리를 떠났다. 그러나 속칭 의화단 봉기가 맹위를 떨치자 만주대목구장은 이 파견의 철회를 요청하고 홍콩지부의 경리부장이 그를 조선으로 재파견함으로써 그는 1900년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 ▶ 1901년 4월의 피정 끝에 무세 신부는 조선 서남부의 큰 섬 제주도로 발령받아 1년 전부터 재임중인 라크루츠Lacrouts 신부 곁에 머물게 되었다. 1901년 5월에 섬은 무질서상태에 있었다. 주민들은 지방 관리들과 욕심 많은 봉세관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유혈사태가 빚어져 우선적으로 신자들과 예비신자들 가운데 다수가 사망했다. 봉세관들에게 고용된 세금 징수원들 중에는 일정수의 신자들과 예비신자들 또는 가짜 예비신자들이 있었다. 먼저 관리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민중은 다음에는 신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밀려왔다. 한 달 뒤 봉세관과 주동자들이 체포되고, 전함이 제주 연안에 정박하며, 서울로부터 조정관과 군대가 도착하자 겉으로는 질서를 회복하였다. 이후 무세 신부는 섬의 남부를 관할하였다.
- ▶ 이듬해 무세 신부는 타케Taquet 신부와 본당을 바꾸라는 명령을 받고, 타케 신부는 제주도 남부로 오고, 무세 신부는 부산 서쪽의 큰 항구가 된 마산으로 갔다.

라크루츠 마르셀(LACROUTS, Marcel, 1871-1929) 우리말 이름: 구마슬 具瑪瑟

- ▶ 바욘느Bayonne 교구, 피레네 아틀랑티크Pyrennées-Atlantique(옛 바스-피레네 Basses-Pyrennées), 보르드Bordes에서 1871년 5월 8일에 출생했다. 아버지는 장 라크루츠Jean Lacrouts, 어머니는 루신 푸르상Lucine Fourçans(?)이었다.
- ▶ 1890년 9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894년 7월 1일 사제품을 받았고 조선에 파견되어 그해 8월 29일 파리를 떠나 10월 25일 서울에 도착했다.
- ▶ 조선어 공부를 조금 한 뒤 그는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전란 당시 중국군에 의해 살해되었던 조조Jozeau 신부가 담당했던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배재로 발령받았다. 드게트Deguette 신부가 1879년 조선에서 추방되었다가 돌아와 얼마간 숨어 있던 산간 벽촌의 교우촌이었다. 베르모렐Vermorel 신부가 거기서 5년을 지냈고, 조조 신부가 1년 남짓 머물렀던 곳이었다. 1895년에 도착한 라크루츠 신부는 그해에 수류에 정착하였다. 그곳 신자들이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해에 조선 대목구장 뮈텔 주교는 라크루츠 신부에게 적어도 그의 신자 중 몇 명을 전라도 목포로 이주시켜 미래 교우촌의 핵심이 되도록 설득해줄 것을 청했다.

- ▶ 1900년 6월 그는 수류로부터 조선 서남부 끝에 위치한 큰 섬 제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페네Peynet 신부는 그 이전 13개월 동안 한 조선인 신부와 함께 사전담사의 임무를 수행하며 집 한 채를 사두었다. 정치적 억류자들을 귀양 보냈던 이 섬에는 당시 인구가 150,000명이었다. 그곳에서는 관료들이 내륙보다 훨씬 더 민중을 탄압하고 강탈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민중은 시시때때로 민란을 일으켜 탄압자들을 살해하곤 했다. 라크루츠 신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잖은 수의 예비신자들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일부는 참으로 성실했고, 다른 일부는 탄압자들에 대비한 피신처를 '양대인(洋大人)'에게서 찾는 듯 보였다. 그는 항상 낙관적이어서 그들의 동기가 복잡함을 잘 의식하면서도 이 예비신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신자들이 되기를 기원했고 교육과 세례의 은총을 받기를 희망했다.

- ▶ 1900년 그 해에 정부는 새로운 징세관을 파견했는데, 그는 참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으로서 새 신자들 몇을 고용하였다.
- ▶ 1901년 초 라크루츠 신부는 세례자 200명과 1,000명 가량의 예비신자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 ▶ 그가 선교사들의 연례 피정으로 섬을 떠나 있을 때 민중은 항거를 일으켰다. 그가 무세Mousset 신부와 함께 5월에 돌아왔을 때 섬 전체가 흥분해 있었고 제주성은 포위되어 있었다. 신자들은 마을과 도심 현장에서 학살당하고 있었다. 민군은 그들이 직접 '양대인들'을 공격하리라고 선언했다. 이 항거는 한 달 가량 지속되었는데, 라크루츠 신부는 1901년 6월 4일자로 뒤편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참극으로 살해당한 교민이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말한다. 제주에 파견된 평리원 안종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교민 가운데 309명, 평민 중에 8명인 것으로 전한다.

- ▶ 안정을 되찾게 되자 라크루츠 신부는 폐허를 수습하기에 노력했다. 예비신자도 더 이상 없었고 새 신자들은 드물어졌으며,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야 했다. 그는 특유의 낙천적 자세를 유지하며 기가 죽기는커녕 복음을 전파하고 성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의 열정이 일러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는 여러 마을에서 강론하고 주민들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그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알곡의 씨는 뿌려졌고 1901년의 민란이 일어난 지 70년 뒤 도청소재지인 제주시는 제주지목구의 중심이 되었다.
- ▶ 1909년 라크루츠 신부는 여자학교 신성학교를 설립했고 일본 세력은 라크루츠 신부가 전주로 이동한 다음해인 1916년 강제로 폐교시켰지만 독립한 직후 다시 개교했다. 1911년 대구대목구의 설립 당시 라크루츠 신부는 거기에 소속되어 계속해서 제주도 신앙 공동체를 동반하였다.
- ▶ 여러 선교사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그는 1915년 5월에 물으로 돌아가 전주에서 선종한 보두네Baudounet 신부의 후임이 되었다.

- ▶ 1916~1918년 기간에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프랑스에 있었다. 1919년 임지에 복귀한 그는 신자건 외교인이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주 도심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전교했다.
- ▶ 그는 1924년 한 환자에게 중부성사를 주다가 자신이 같은 병에 걸려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1925년 그는 건강이 쇠잔하여 진료차 홍콩에 가야 했고, 의사는 그가 폐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홍콩에서 더 머물러야 했지만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느끼자 그는 임지로 돌아와 그의 사목을 계속했다.
- ▶ 그러나 1929년 1월 그는 다시 건강이 나빠졌다. 그의 시력이 떨어졌고 원기가 빠져 나갔으며 그의 방밖으로 거의 나갈 수 없었고 뼈와 가죽뿐인 사람이 되었다.
- ▶ 1929년 8월 10일 그는 제주의 옛 본당신자들의 문병을 받고 그들과의 오래된 추억들을 기꺼이 나누었다. 몇 시간 뒤 8월 11일 새벽 1시경 라크루츠 신부 바로 위층에서 잠자던 루이 뤼카Louis Lucas 신부가 걱정되어 라크루츠 신부 방을 찾았을 때 그는 온 입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다. 뤼카 신부는 즉시 약식으로 사죄경과 중부성사를 주었고 라크루츠 신부는 바로 선종했다.
- ▶ 1929년 8월 13일 그는 전주교구 성직자 묘지, 그의 선임자 보두네 신부 곁에 안장되었다.

에밀 타케(Taquet, Emile joseph, 우리말 이름 엄택기, 1873-1952)

- ▶ 에밀 타케(Taquet, Emile joseph) 신부는 1873년에 아버지 이폴리트 타케(Hippolyte Taquet, 1840-1901)와 어머니 안나 위바이유(Anna Wibaille, 1850-1937)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리식 이름은 엄택기(嚴宅基)이다. 우리 식으로는 "엄격한" "집의 기초"를 의미한다. 하느님께 열린 존재는 엄격과 온유, 굳셈과 유연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타케 신부는 바로 그런 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니면 적어도 그런 면을 갖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 "굳건하게"(嚴) "하느님의 집"(宅)을 조선 사회에, 이땅에 "뿌리"(基)내리기 위하여.
- ▶ 타케 신부는 1897년에 사제품을 받고 한국으로 파견되어 1898년 1월 5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먼저 감곡에서 사목 중이던 부이용 카미유 신부와 함께 지내면서 한국 말과 사회를 익히는 기간을 갖는다. 1898년 4월부터 부산 초량 본당을 맡아서 경상남도 남부 지역 사목에 참여하였다. 1898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6월초까지 밀양군과 김해군에서 사목하였고, 1899년 6월 3일부터 진주 본당을 설립하여 진주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사목하였다.

- ▶ 1901년에는 진주를 포기하고 항구도시 마산에 정착하기로 했다. 그는 거기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보다 큰 시설을 목표로 한 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 그는 사제관인 동시에 소성당으로 사용할 조그만 초가에 만족해야만 했다.
- ▶ 1902년 타케 신부는 제주도로 전임되어 산남 지역 한논 본당 3대 주임으로 사목하면서 라크루츠Lacrouts 신부와 함께 제주 사회를 동반하기 시작하였다. 뮌텔 주교에게 제주를 떠나기를 간청하였던 무세 신부는 타케 신부가 사목하던 마산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 ▶ 타케 신부는 한논(서귀포시 호근동 한논) 본당에서 사목을 시작하였으나 곧 지금의 서귀포시 서흥동 지역 흥로로 본당을 옮긴다. 그는 뮌텔 주교에게 본당을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전한다. “허술한 집 여기저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은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지붕은 제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마루’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리고 연중 내내 그렇다고 하는데-바람을 쐬 수도 없습니다. 반면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벽 틈을 통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그곳으로 뱀과 다른 벌레들이 지나다닙니다. 집은 논에서 10m 정도 되는 곳에 있으므로 이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제게 키니네를 달라고 합니다.”
- ▶ 타케 신부는 한논 본당에 부임한 이후 본당을 흥로로 옮겨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간다. 그는 특히 교안 이후 라크루츠 신부와 함께 제주민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진력한다. 그런 가운데 1903년에 신자 30명과 예비자 200명 규모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 ▶ 1904년 35명의 성인 세례자가 탄생하였고 작은 공소 몇 개를 세울 희망을 갖고 기뻐하였다.
- ▶ 1905년 그는 15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제주민들 사이에서 천주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 1906년 초에 뮌헨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주 목사 조종환과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불의, 수탈,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면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교도들 역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힘든 굶주림, 그러나 거룩한 굶주림입니다. 목사는 신자들에게서 마을 유지들이 등을 돌리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 만일 폭동이 가까워져 오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는 대신 제 신자들과 함께 남을 것임을 주교님께 알려드립니다.” 뮌헨문서번호 1906-43

- ▶ 1908년 “성탄절에 사기꾼들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의 신자들 모두가 성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65명이 고해성사를 보았고 첫영성체를 할 소년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을 곧 준비시켜야겠습니다. ... 저는 그들 각자에게 작은 두루마기 한 벌씩을 사 줄 것이며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잡을 것인데, 거의 교리 공부를 하지 않은 대역섯 명의 다른 아이들도 좀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뮌헨문서번호 1908-25
- ▶ 1909년 제주도의 두 본당에 349명의 신자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 ▶ 라크루츠 신부와 타케 신부는 신앙 공동체를 돌보면서 용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갔다.

- ▶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열전 저자는 타케 신부가 1916년에 제주를 떠나서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물과 수많은 섬들을 동반하는 동안 “차분함과 인내심”을 보여준 것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가 제주에서 1906년부터 1912년까지 시도한 식물 채집과 연결하여 이렇게 쓴다.
- ▶ “그는 이런 덕목을, 나중에 유럽식물원에 보낼 식물들을 관찰하고 수집하면서 찾았던 것일까? 어쨌든 그는 뛰어난 식물학자의 명성을 얻었고, 그가 선교 임무를 띤 섬들에서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딴 식물, 예컨대 드리옵테리스 타케티 *Dryopteris Taqueti* 또는 로제 타케티 *Rose Taqueti*, 디프라지움 타케티 *Diplagium Taqueti* 같은 식물들이 있다.”

- ▶ 타케 신부는 1911년 대구대목구가 신설되면서 이 새 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1915년에 라크루츠 신부가 이해 5월에 선종한 보두네 *Baudounet* 신부의 후임으로 전주 본당 사목을 위해 제주를 떠났다.
- ▶ 다음해인 1916년 5월 27일에 타케 신부도 제주도를 떠나서 목포 산정동 본당을 동반하게 되었다. 이때 드망즈 주교는 제주와 홍로 본당 어디에도 사제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타케 신부가 1년에 두 차례 제주를 방문하여 이곳 신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 ▶ 타케 신부는 1922년 9월에 목포 본당을 떠나서 대구 남산동에 있는 유스티노 신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 ▶ 타케 신부가 1933년에 환갑을 맞았을 때, “그의 옛 본당 신자들과, 신부가 된 옛 신학교 제자들”이 그를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 그는 1931년에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는데, 1940년에 교장직에서 물러나서도 1942년까지 교육을 계속하였다. 타케 신부는 한국전쟁으로 포항 지역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대구 신학교로 돌아와서 지내다가 1952년 1월 27일 선종하여 대구대교구 교구청 묘지에 묻혀서 대구대교구의 신학생들과 사제들과 주교들, 그리고 신자들과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다.

김원영 신부의 수신영약修身靈藥과 마테오 리치의 선택적 적응주의의 상관성

- ▶ 마테오 리치의 절대적 배타주의-불교 도교에 대하여

선택적 적응주의-유교에 대하여

천-하늘 이해 수용

이기(理氣) 태극 만물일체 배경

선택적 적응주의의 원인: 타락 구원 틀-단한 그리스도 신학

인간중심주의

내세 신앙

- ▶ 김원영 신부의 철저한 사랑, 그러나
- ▶ 단한

마테오 리치가 제시한 차이나 사람들의 입교 조건

- ▶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천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성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이 대표하는 인물을 천주의 부하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상이 대표하는 인물이 가르치는 사람됨의 도리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므로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동기는 좋다. 전해지는 말에 근거해서 보자면 이 사람들의 생애는 대부분 도덕에 합당하다. 그리스 로마 시인들이 그린 옛 서방 신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천주교의 신앙과 도덕을 높이 받들지만 천주교의 우상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합리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선조가 남겨 놓은 전통이며 우상을 배척하는 것은 선조를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긴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 II, 신진호/전미경역, 지식출판사, 2013, 689

- ▶ 그런데 리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 ▶ “비교인들이 천주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천주교가 우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688-9
- ▶ “중국인들은 다른 비교도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사찰에 우상을 모셔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호신처럼 집집마다 많은 우상들을 모시고 있다. 중국인들은 우상 곁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 ▶ 따라서 교우가 사찰에 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들로 하여금 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 ▶ 이로부터 한 사람이 천주교를 믿으려면 얼마나 큰 용기와 정성스러운 의지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과거에 의지했던 우상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심지어는 불태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연기와 재마저도 참지 못하고 우상을 강에 버리거나 신부에게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 ▶ 비교도의 관에 이것은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도 한 것이다. 689-90

- ▶ 우상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해 교우를 일생 동안 불편하게 만들었다.
- ▶ 왜냐하면 각지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상 행진을 거행하는데, 관습에 따라 그 비용은 모두가 분담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돈을 낼 수 없다는 교우의 입장은 처음부터 매우 완강해 지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690
- ▶ 이런 관점이 동아시아 복음화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 이런 관점에서 김원영 신부의 수신영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 ▶ 김원영 신부의 실행들을 보기 전에 1610년 5월 10일에 마테오 리치 신부가 하느님께 돌아간 후 명나라 황제가 준, 사원이었던 묘지에 리치를 안장하면서 선교사들이 한 일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전한다.

- ▶ “여기서 언급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아마 하늘의 뜻일 것이다. 일생 동안 우상을 반대한 리치 신부에게 우상을 매장했다.
- ▶ 가장 큰 우상을 부수고 잘게 갈아 물을 섞어 묘지 벽돌 사이를 붙이는 용도로 쓴 것이었다. 분묘를 세우는 동시에, 이전 사찰을 구세주 예수께 봉헌하는 성당으로 바꾸기 위해 몹쓸 것들을 한바탕 몰아냈다.
- ▶ 중당에 있는 돌과 벽돌로 만든 커다란 제단과 오색찬란한 천장은 매우 아름다웠다. 중국 풍속에 따라 사당 안의 제단은 붉은색이었다. 개인 가정에서는 홍색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제단 중간에는 진흙으로 만든 보기 흉한 조각상이 놓여 있다. 곁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색이 칠해져 있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지장왕’이라 부른다. 땅을 관리하는 신이자 진귀한 보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중국의 저승신이다. ...
- ▶ 우상을 제단에서 들어낸 후 진흙으로 만든 우상은 부수었고, 목재로 만든 것은 불에 태웠다.
- ▶ 하인들은 이 일에 매우 열심이었다. 그들은 누가 더 많이 부수는지를 놓고 시합을 벌였다. ... 사악한 신의 제단을 철거했고, 벽에 걸린 벽화도 덧칠했다.”

- ▶ 리치 신부는 유교는 선별적으로 포용하면서도 불교는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여기에서 “전면적 배타”와 “선택적 적응”이라는 말을 찾아내게 되었다.
- ▶ 민간 신앙 역시 우상숭배로 거부하였다. 리치의 동료들은 부처, 보살, 신선을 마귀로 보고 문왕 역시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파사집-17세기 중국인의 기독교 비판, 서창치 등 편,
안경덕/ 이주해역, 일조각, 2018, 181, 215 등 참조.
- ▶ 마테오 리치의 묘지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위의 예에서 이런 태도로 사당에 모셔져 있던 상들을 실제로 파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의식이 사회 생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리치의 위계적 세계 인식

- ▶ 리치는 하늘과 땅을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대등하게 보지 않는다. 그의 사람 중심 영혼 중심 위계적 존재관은 하늘과 땅과 같은 물리적 실재들 사이에서도 작용하여, 하늘을 땅보다 높게 보는 인식을 드러낸다. 땅이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것은 땅이 “인간에게 부림당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있는 땅은 밭에 짓밟히고 온갖 오물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주실의, 2편 15)
- ▶ 실제로는 땅은 사람은 물론 수많은 생물들이 밟고 온갖 오물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수많은 생물들을 길러 주고 밟으면서 배출한 오물들을 정화해서 사람과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야말로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실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 ▶ 하지만 리치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인간 중심 위계적 인식 위에서 하느님의 존엄을 설득하는 신학 기획 속에서 저렇게 땅을 낮추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의 이상숭배관으로 구체화되어서 이것이 1900년을 전후한 한국 사회는 물론, 심상태 문시놀이 직접 고백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도적인 신앙 살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원영 신부의 사랑과 깊이와 투철함

- ▶ 김원영 신부의 제주 사회 인식과 사목 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그가 쓴 <수신영약(修身靈藥)>이다. 그는 제주 교안 이후 제주를 떠나서 당시 교회가 발간하던 <경향신문> 발간 작업에 참여할 만큼 신앙에 대한 이해와 필력을 갖춘 사제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가 남긴 작품들로는 이 작품 말고도 <회장필지>(1912년), <미사 참여하는 묘한 법>(1921년), <회장피정>(1931년), <신공보화>(1931년) 등이 있다.

- ▶ 김원영 신부에 대한 오기선 신부 기억: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이다. 방학을 해서 집엘 갔더니 ‘요셉아, 넌 신부가 돼도 덕이 많은 신부가 돼야 한다. 우리본당 김 신부님처럼 덕이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어머니가 들려준 사연은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 김원영 본당신부는 항상 노새를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겨울 매섭게 추운날 김 신부는 공소방문을 가는 도중 산모퉁이에서 얼어죽게 된 걸인을 만났는데 주인을 닮아 덕(?)이 높은 그 노새가 걸인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땅을 두발로 파면서 가지를 앓고 울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 신부는 노새의 등에서 얼른 내려 수단속에 입을 숨바지 저고리를 벗어 손수 거지에게 입혀주고 거지의 누더기와 바꿔입고서 거지를 노새에 태워 인근 주막으로 데려가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거지를 먹여주고 간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신부는 주막집 주인이 안된다고 할까봐 주막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노새를 채찍질하여 공소로 향했다는 것이다.”
- ▶ 오기선 신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회상한다. “음덕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가.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겨울에 20여 개 공소를 치르는 동안 김 신부는 누더기의 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오기선 신부는 김원영 신부가 사랑이 매우 깊은 사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 ▶ 김원영 신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갓등이 주임신부로 사목하면서 1914년에 한문서당을 신명의숙으로 바꾸어 육영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김신부는 교우들은 자녀를 성당의 서당이나 의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기선 신부는 김신부가 자녀를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의 성사를 막기까지 했던 사례를 전한다.
- ▶ “그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어쩌다 그 미련한 놈, 버리지만도 못한 놈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갓등이 본당 회장이 김신부에게 사정하는 소리였다. 그의 아들이 김신부가 연 신명의숙(성당 학교)을 졸업하고 서울 배재중학교에 공부하려 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 ▶ 그러자 김원영 신부가 “집안 식구들에게 파문벌을 주셔서 회장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용서를 청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김신부는 “그 아들을 중도퇴학을 시켜 이 자리에 같이 꿰어앉히기 전에는 결코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 ▶ “마침내는 회장 입에서 ‘그만두슈! 입학시키기도 하늘의 별따기 같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퇴학시키라니... 저런 꼭박힌 신부 같은니!’ 하는 소리가 나왔고, 회장은 일어나 가버리고 말았다.”
- ▶ 오기선 신부는 이 일을 전한 후에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적었다. “김 신부님이 그렇게 강경했던 이유는 천주교 집안의 자식을 개신교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면 대죄였기 때문이었다. 또 그렇게 가르쳐놓으면 다 냉담 한다고 서술이 시퍼래서 마룻장을 구른 것이다.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스피노자의 이상과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설사 많이 배워 냉담하더라도 나중에 짚고 일어서 회개할 수 있는 지팡이를 그 마음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는가.
- ▶ 그때 말썽이 됐던 주인공인 내 동기동창은 배재학교를 나와 일정시대에는 그곳 면장까지 지내면서 일제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교회 일에 앞장섰고 자기본당을 수호했으며 씩씩한 일꾼으로 오늘도 내일도 교회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옛 이야기를 기쁘게 해가며.”

- ▶ <수신영약>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탄식서/
- ▶ 1. 턴쥬 뉘시뇨 / 2. 턴쥬-제시냐 / 3. 일위 턴쥬시냐 / 4. 무어 사람이뇨 /
- ▶ 5. 성교 셔교 아니라 / 6. 선친이 불봉성교 / 7. 제사 모심 / 8. 타인이 불봉성교 / 9. 만흔 편을 딸온다 / 10. 일인도 턴쥬불건 / 11. 부귀 자-불봉성교 /
- ▶ 12. 만민이 맛당이 봉턴쥬 / 13. 우리 나라 성교인 적음 / 14. 성교-렬교로 분별 / 15. 여러 정도 업다
- ▶ 16. 감아니 안잔이만 봉성교 / 17. 성교 능욕 /
- ▶ 18. 교외 유분별 / 19. 혼배 / 20. 불취첩 21. 쥬색 22. 배암을 공경치 못한이라 / 23. 풍슈와 탁일과 상보는 것 / 24. 무당 / 25. 제쥬 각이단 /
- ▶ 26. 약

김원영 신부가 수신영약을 쓴 이유는 “탄식서,” 곧 “탄식”을 담은 “서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읽기 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거룩하시다 우리 천주 예수 그리스도여 너는 참 만민의 공변되신 구속자시로다 어찌 이 지방인들 네 성혈 공로 없으리오 어찌 네 십자가로 이 지방인들 구속지 아니하셨으리오
- ▶ 아깝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나매 무엇을 하려 왔느냐 호의호식하려 왔느냐 혹 아무 일도 아니하고 부귀일락만 취하려 하느냐 참혹하다 우리 사람 된 본성품을 이렇게도 몰라 육축갈을소냐 우리 영리하고 바른 양심 어디 갔나
- ▶ 슬프다 만물 내신 하늘님을 받들어 흠송할 자 상고 적만 못하도다 이 상고 때 사람들은 우리 성교를 진심 확실하게 준행하였으나 시방 우리 사람 사육편정만 따르고 천상 천하의 주재 되시는 하늘님은 공경치 아니하고 이단사망에 골몰한가 이제 사람들아 어찌하여 천주성교 근본은 파보지 않고 저 바른 양심을 속이려 하느냐 근래 사람들 보건대 다만 자기 양심만 잃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교 하려 하는 사람까지 무함하고 훼방하느냐 불쌍하다 이런 사람 마치 병이 고향에 들 갈아 날마다 영원한 벌과 재앙을 누적하는도다 이러므로 나 마음을 다하여 이 아래 몇 가지 향용하는 핑계를 들어 밝힌 후에 도리로서 제성함은 내 사람 사랑하는 본분을 채우고자 함이오 제일 만유 위에 계신 천주를 애모하고 공경함이로다

- ▶ 빌지어다
- ▶ 전능하신 천주여 너 죄인을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회두하여 살기를 원하시는지라 구하나니 우리 뱀을 들으사 저 외교인들을 구하여 하여금 토목사상과 이단사망을 끊어 버리고 네 성교 안에 들어와 네 이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되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소서 아멘
- ▶ 降後 千九百 元月 初五日 始

- ▶ 26은 수신영약의 맺음부인데, 그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김원영 신부가 얼마나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차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 천하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되 어느 사람이 무병하리오 우리 원조 아담 범명(犯命)한 후로 피할 수 없는 질곡이라 그러나 병자는 부득이 약을 채용하여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기백(岐伯)과 편작(扁鵲)은 아니나 한마디로 병의 여섯 짝을 지시하노라 빛과 열과 공기와 물과 음식과 운동함이니 어떤 이는 암실에 항상 거처하며 빛을 보들 못하니 탈이 나며 흑자는 사벽(邪辟)과 노고에 과히 골몰하여 기질이 약하며 어떤 이는 오염된 기운을 흡함으로 골병이 들며 혹은 독기를 식(食)하여 황달이 들며 어떤 수재들은 공부 속에 정신을 과히 쓰는 고로 광증이 나느니라 그러나 어찌하여 전 사람들은 상수(上壽)로 살고 근래 사람 요사하는 자 나날이 수를 헤아릴 수 없소 아마 무당이 굿을 7, 8일만 하는 것이 부족하여 귀신들이 듣지 못한 것이오 한 7 80년 동안에 다시 심방 불러 굿을 해보시오 무슨 효험 한 70년 후에 있으리오

- ▶ 아무리 생사는 유명(有命)이라 하나 백살 사는 사람이 없는지라 무병하고 썩지 않은 실과는 제철이 되어 떨어지기에 항용 말하기를 생사지교(生死之交)는 과숙자락(瓜熟自落)이라 하느니라 어찌 제주 인민들이 성교 교사(教師)들이 약 있다 매일 약을 청하려 병들기가 무섭게 오느뇨 항상 병세 탐진하려 날 수 물어 보면 작일이라고도 하고 요날 식전에 팔자가 좋지 못하여 병근이 아무 사람을 고집(固執)하여 대인께 상호품 금계랍이나 회충산을 구하러 왔노라 하니 육신병 위해서는 옛적 백부장보다 백배 나으나 이런 사람은 사람이 어찌하여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 ▶ 사람 되려 하면 첫째 영혼 있고 둘째로 육구(肉軀) 있어 상접하여 생기 있는 사람이라 하니 이리므로 첫째로 영혼을 질곡에서 빼어내기로 이렇게 날마다 교사에게 오면 그 과정에서 육신도 무병하여 하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수(多壽)까지라도 하게 하시리라 어찌하여 제주 인민들이 안병이 많으뇨 내 잠잠이 생각하니 하늘님께옵서 인생에게 두 눈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행선피죄(行善避罪)하게 하시며 또 두 눈이 높은 면상에 있게 하사 만물 얼른 바라보아 위로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아 천주 조물자를 얻어 보게 하시었는데 사육편정에와 토목사망에게만 몰두하여 비례와 비의지사(非義之事)를 하니 이런 사람을 천주 벌써 금세에서도 암암지중에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사후세에는 사람의 구설로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감옥소로 보내어 벌을 주시리라

- ▶ 좋은 육신의 교사(敎使) 덕에 있는 약만 구청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좋은 약을 얻어 듣고 다독(多讀) 성교서(聖敎書)하여 개과천선하여 구중심중(口中心中)에 집충궐중(執充厥中)하여 하루하루 새로워져서 일일신 하고 우일신하면 진시황의 불사약보다 억천배가 유익하여 영영 불사불멸하여 훗날 공심판 때 만복소에 육신도 가서 향수(享壽)하리니 군자들은 이런 말을 귀너머 듣지 마옵

- ▶ 수신영약 종

- ▶ 大韓光武 四年 庚子 元月 十八日 終 509
- ▶ 大敎化皇 良第 十三位 而 降後 一千九百年 1900
- ▶ 金奧定 鐸述

- ▶ 이런 성격의 소유자 김원영 신부가 제주도 사회 생태의 핵을 구성하는 전통 신앙 형태들을 이단사망으로 단죄해 간다. 김신부는 수신영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 사망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가는데, 뱀 숭배와 무당 굿 등을 의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 후에 “사람은 이를 막지 못하나 하늘은 필연코 이를 없애리라”고 확인한다. 그는 정월 거리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진술한다. “노형보다 더 비천한 무당이 무슨 재능이 있기에 악귀를 몰아 내쫓으며, 풍악과 경 읽음으로 좋고 상서(祥瑞)로운 신을 홀려 들여오리오.”
- ▶ 많은 것이 있지만 신당 제사와 천제 등과 관련해서 한 사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신당에 종이와 땡기와 고운 밥과 벼 조각 등을 걸고 손으로 빌어 재앙을 면하려 하니 허황하도다. 이 나무가 음식(飮食)을 하오. 이 신당이 한기(寒氣)로 옷을 달라고 한단 말ियो. 머리가 없는데 어찌 땡기로 머리를 치장하려 한단 말ियो. 신당이 영리하여 편지나 축 일지를 쓴단 말ियो. 이런 허비(虛費)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사(施捨)를 하면 공로나 있어 하느님의 진노(震怒)를 면할 것인데, 고집불통이라 전부터 시행해 내려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이 무령한 나무 덩불이 무슨 조화를 부리리오.”

- ▶ 김원영 신부의 이같은 의식은 김원영 신부 개인의 생각으로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의식은 관계 속에 육화될 가능성을 갖는데, 김원영 신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같은 의식을 제주 한논 본당 초기 신자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다. 또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직접 신당과 당목을 파괴하고, 굿을 방해하며 무당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는 것을 1901년에 발생한 제주 교안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당 방화 당목 뱀 굴 훼방

- ▶ 2. 이기선 신영호 역돌리 신당 불/ 신영호 죽음으로 확인 불가
 - ▶ 6. 이기선이 교인 풀어 오조리 성황당 방화 나무 뱀/ 부정
 - ▶ 16. 이기선 홍신규 좌면 신당 불 당목 뱀/ 부정
 - ▶ 33. 이기선이 이항근 홍신규 송원길 신영호 등에게 신선리 신당에 불/ 이기선 무관
 - ▶ 35. 이기선 김신호에게 삼달리 신당 불 당목들 뱀/ 이기선 무관
 - ▶ 36. 이기선 문기만에서 하천리 신당에 불 후 동민들에게 금전 탈취/ 이기선 무관
 - ▶ 12. 이기선 신영호 홍신규가 한인열 집에서 기도 훼방/ 부정
- 위의 자료들은 관이 “정의군 교인들의 폐단을 사실대로 조사한 문서”에 제시된 것이다. 정의군 교인들의 폐단을 사실대로 조사한 문서: 자료집 2, 51-77.

- ▶ 라크루츠 신부는 오신락 사건을 뮌헨 주교에게 보고하면서 “김원영 신부는 성인이지만,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였다. 김신부가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 라크루츠 신부가 1901년 3월 13일에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 뮌헨 문서 번호 제주-14.

- ▶ 제주교안에 관해서는 박찬식, 『제주민란연구』, 각, 2013 참조.

- ▶ 제주교구는 100년을 맞으면서 제주교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한다. “교안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갖가지 폐단, 즉 양대인으로 불리는 선교사나 교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민들을 억압한 일, 교회에 거짓 의탁한 일부 신자들이 지방민들로부터 금전이나 토지를 탈취한 일, 제주 지역의 풍습을 무시한 채 신목(神木)을 베어 버리거나 당집을 헐어버린 일과 김원영 신부가 오신락 자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던 점이 교안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제주천주교회 100년사』,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1, 91.

신축 교안 1901년

- ▶ 양대인-군함-대포-권총 매질 의식-가르치는 존재
- ▶ 교인-세력-정의-교회 내 감옥
용교인-세력-정의를 내세운 불의
이상 타파-무당-당집-당목에 대한 폭력/ 제주 전역
- ▶ 이재수-수탈 세력에 대한 저항
프랑스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저항
- ▶ 프랑스 공사와 함대
제국주의 침략 세력
정의를 바로세우는 균형추
- ▶ 조선과 대한제국과 한국 사회의 정의
폭력 불의/ 천주교도들 학살
강우백 오대관 이재수의 의사 차원과 폭력 차원

- ▶ 갈등과 대결 구도 속에서 김원영 신부와 교인들에게 대항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정의군 하효리 마을의 현규석이 1901년 2월에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판에 새겨서 자기집에 걸었다. 이것을 안 김신부는 이것을 떼어내고 이것을 만든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현규석의 집으로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냈다.
- ▶ 한번은 오달현 등 신자 여덟 명을 보내어 현판을 쓴 사람을 알아보도록 했으나 이들 모두 맞고 돌아왔는데, 이들 가운데 세 명이 사경을 헤멜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김신부는 다시 오창현 등 신자 40여 명을 보내서 현규석을 데려오게 하였다. 현규석이 피신하여 그의 부친 현유순과 오신락 부자를 데려왔는데, 김신부는 현유순에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신자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었고, 그는 오신락이 그렇게 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오신락은 자기는 현규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김신부는 오신락에게 매질을 가하게 하고는 다음날 관아에 알리기로 하였다. 오신락은 자기에게 매질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오달현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 밤에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였다.

- ▶ 라크루츠 신부는 이 사건을 워털 주교에게 보고하면서 “김원영 신부는 성인이지만,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였다. 김신부가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 오신락 사건이 있던 뒤에 유배자로서 신자가 된 이범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라크루츠 신부는 옥문을 부수고 그를 빼내기도 하였다. 김원영 신부와 라크루츠 신부, 그리고 한눈 본당 신자들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제주 사회에서 그리고 당대 조선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사목적으로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 ▶ 관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초법적으로 행동하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제주민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비판받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불법적인 일로 인식하기 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 ▶ “정의군 교인들의 폐단을 사실대로 조사한 문서”에 의하면 교인들의 폐단은 모두 178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 ▶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경제 영역과 윤리 영역과 사회 관계 영역과 종교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사건에서 이 영역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경제 영역의 경우 조세와 관련된 문제와 토지와 어장과 관련된 문제, 채무 불이행과 금전 탈취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윤리 영역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9건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사적인 형집행과 산송 문제는 사회 관계 영역과 연관지어 접근할 수 있는데, 전자는 18건, 후자는 4건이 나타난다. 강제 입교와 무당과 정령송배와 연관되어 있는 토속 신앙 배척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전자는 8건, 후자는 31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당시 교회는 38건(1-2, 4-7, 10-12, 15-16, 19, 21-22, 24, 26-27, 33, 35-37, 40, 61-62, 66, 71, 81, 84-87, 89, 93, 107, 125, 132-134조)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명하고, 교인 허준과 관련된 사안들과 신당에 불을 지른 일과 신당의 나무를 벤 일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명한다. 폐단으로 제시된 항목 가운데 140개조가 응답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 고종 황제의 황실 재정을 관리하는 내장원에서 강봉헌을 봉세관으로 임명해서 제주도로 파견하였다. 강봉헌은 1900년 10월에 제주도에 와서 황실 내탕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면서 지방관을 소외시켰고, 세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제도를 바꾸고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년 전에 경감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어장과 어망, 소나무, 목초지, 계란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서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강봉헌이 온 후에 기존에 세금을 거두는 업무를 수행하던 향리들 중에 입교한 이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강봉헌 자신이 제주도 신자들 가운데 여러 명을 사음으로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새로운 세금 징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천주교도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특권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강봉헌과 교민 사음들은 제주도 사회에서 새로운 징세 세력으로 등장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이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을 김윤식이 그의 속음청사에 기록해 놓았다. 이 증언에 의하면, 강봉헌은 교인들과 상통하면서 공토 사음은 물론이고 어선과 어망과 연관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교인들에게 맡겨서 십여 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으면 교인이 그 반을 빼앗아서 상납하고 계란 수십 개를 모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반을 빼앗아서 계란세라고 했다. 소 말 닭 개 모두 이들의 세금 징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 ▶ 사실 조사 기록에 의하면, 교민 사음들이 보인 폭력 행위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례 1, 19, 21, 22 등은 이기선이 역돌리 활터를 비롯해서 경작지를 탈취하고 모초(茅草)값을 강제로 받아내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한다. 8에는 고인관이 봉세관의 명령을 앞세워서 어망 세로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 18은 강기순이 수산진 자리 한쪽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137에서는 신영희가 여러 땅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104와 141과 145와 172는 홍남일이 세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주장한다. 143-144는 홍순병이 가막 다섯 채에 대한 세금을 물게 하고 세전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159-160은 오치현이 밭들을 탈취한 것으로 말하고, 161은 이정표가 밭을 강제로 탈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외에도 교민 사음들이 세금 명목으로 강제로 금전을 탈취한 사례로 전해진다. 이향근과 관련된 사례 20과 김신호와 관련된 29, 30, 34, 문희원과 강두승이 관련된 55, 박봉옥 등이 관련된 56과 58과 60, 최재홍이 관련된 69, 허준과 관련된 73, 101, 127, 145, 강희진이 관련된 120, 신가라는 교인과 관련된 157, 이정표와 관련된 161이 세금을 앞세운 금전이나 땅 탈취와 연관되어 있다.

- ▶ 강봉헌과 교인 사임들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특권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제주 주민들에게 수탈자로 각인되어 갔다. 또한 기존에 제주 사회에서 중간 계층으로서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입교하지 않은 다른 향리들에게 강봉헌과 교인 사임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취할 수 있었던 이권들과 세력을 행사할 기회들을 빼앗는 존재들이 되었다. 또한 제주 목사와 군수들 등 지방 행정관들 역시 강봉헌과 그가 세금 징수자 보조원으로 임명한 천주교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획득해 온 수당과 재력을 늘릴 기회가 줄어들어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제주도 교민들이 새로운 세금 정책의 마름으로서 이를 기회로 수탈하는 존재들로 인식되고 토착 사회의 향임들과 지방관들에게는 이권 경쟁 세력으로 간주되면서 제주도 교회는 급격하게 제주 사회의 갈등과 분노의 한 원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선교사들의 정의 요구로 지방관들과 토착 향임들이 행사하던 권력이 약화되면서 지방관들과 향임들이 선교사들과 천주교회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된 예를 보았는데, 봉세관 강봉헌과 교인 사임들의 등장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

- ▶ 제주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01년 6월 1일경 만들어진 척사 통문에 의하면, 민군은 유배자로서 “교인의 괴수”로 지목한 이용호와 이범주, 장윤선은 다른 섬으로 이배시키고, 고평이, 고일서, 고난천, 김상용, 최재보 형제, 박전대, 이기선, 김사눌, 최복사 등은 법에 따라 참수시킬 것과 신부들은 “그들 나라로 쫓아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민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인물들이 제주민들의 항거를 불러일으킨 핵심 교인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제주 사건이 진정되고 1902년 1월에 “교인의 괴수”로 지목된 이용호와 이범주가 뤼텔 주교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이 참극이 시작된 것은 “단지 전적으로 교인 중의 악한 무리 10여 명이 일을 꾸며 무례하게 화근을 빚은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당시 제주 교인들 가운데서 제주민들의 항거를 불러일으킨 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최선홍이 1935년에 가톨릭연구에 발표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한다.

- ▶ “그때 교우 중에는 열심 교우도 만었지마는 그 반면에 유명무실한 교우와 아직 사리를 모르는 예비자들도 만혔는데 이런 자들이 비리와 불법의 행동을 만히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때 정부에서 신부를 여아대(如我待)하라는 칙령이 있든지라 교중에는 교리연구보다 무슨 권리나 편당이나 리익이나 관직을 구할까 하여 천주교를 리용할 목적으로 입교한 자가 만혔스니 이런 자들이 신부의 권리를 밋고 민간에 무리한 횡포를 만히 행하였다는 것이다.”

- ▶ 이런 상황에서 2월 9일에 김원영 신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의군에서 오신락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4월초에 대정 지역에서 대정군수 채구석이 지방 유림과 향장과 이강들과 주민들을 규합해서 상무사를 조직하였다. 상무사는 보부상들이 조직한 일종의 어용 조직으로 지방 단위에 지사를 두고 있었는데, 제주민들의 권리와 제주 지역 사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채구석이 분사장으로서 상무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강봉헌과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세정에 참여한 사슴들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정과 신자들의 폐단 척결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저항을 조직화해 갔다.

- ▶ 상무사가 조직된 후 교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정군 주민들이 세폐 시정을 요구하면서 민회를 개최해 간다. 첫 민회는 대정군 우면 주민들에 의해 개최되었는데, 그때가 5월 5일이었고, 이때 주민들은 잡세를 과도하게 걷는 것을 시정할 것을 호소하기로 하고 대표로 오대현을 세웠다. 다음날 대정 군민들이 다시 민회를 개최하여 교민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8일에는 대정군 좌면과 중면 주민들이 민회소를 설치하고 대정군수 채구석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봉세관 강봉헌과 그의 세금 징수에 협력하는 천주교 신자 사음들에게 경작권이 빼앗기고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도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다. 다음날 대정군과 제주군 주민들이 다시 민회를 열어 세폐와 교폐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진과 서진으로 나누어서 직접 천주교도들과 맞서 제주성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정의군 우면 이강들을 위협하여 남자 장정 100명씩 이끌고 오게 하였다.
- ▶ 제주도 교민들은 제주 본당에 모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5월 10일 마르셀 라크루츠 신부와 1900년 10월에 한국에 도착한 새 선교사 장 제르맹 무세 신부가 선교사 연례 피정을 마치고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날 봉세관 강봉헌은 제주도로 온 배를 타고 바로 피신하였다. 다음날 제주 군수로서 목사직을 겸하고 있던 김창수가 민군 진영으로 가서 효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대립이 가라앉지 않았다.

- ▶ 이런 상황에서 5월 12일 신자들은 라크루츠 신부를 설득해서 무장하고자 하였다. 김윤식은 라크루츠 신부가 신자들 중에 폐를 끼친 사람들 몇 명을 옥에 가두어서 주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교민 가운데 최형순이 나서서 옥에 가느니 차라리 자결을 할 것이라며 저항하였다고 전한다. 라크루츠 신부에 의하면, 그는 “교우들에게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도록 권유했”지만, “그들은 섬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느니보다는 도읍에서 신부들 옆에서 함께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군 무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조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끝장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우들이 궁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폭동의 경우 지휘관이 체포될 때마다 폭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라크루츠 신부는 “이 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그들을 무세 신부와 함께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다. 교민 지도자들은 자정 무렵 라크루츠 신부를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사제들과 함께 민군들과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

- ▶ 이들은 5월 13일에 민회소로 출발하여 다음날 민회소를 습격해서 대정군 향장으로서 상무사 지도부에 있던 오대현 등을 체포하고 민군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워털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총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1명을 사살하였고, 김윤식의 기록에 의하면 교민이 쏜 총에 2명 혹은 6명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5월 15일에 교민들이 제주읍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민군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었고, 워털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일본인들에게 무기와 식량을 제공받기 시작하였다.
- ▶ 5월 16일 제주 군수 김창수가 민군을 만났다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몸을 피하였다. 민군은 집결하여 제주성을 포위하였고, 교민들은 제주읍성 성문을 닫고 대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5월 18일 교민들은 제주읍의 무기를 취해서 민군의 포위망을 뚫고 60여 명의 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김윤식에 의하면, 이날 제주군수가 황사평으로 민군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민군들이 교민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21명임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분노를 확인시켜 준다. 대정군수 채구석을 수행하는 일을 하면서 인성리의 이강과 상무사 집사 역할을 하던 이재수는 민군의 장두로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한 최후 진술에서 이때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다.

- ▶ “나는 이강으로서 동민들을 데리고 민회에 나아갔습니다. 교인들이 비록 다른 나라의 글을 배웠다고는 하나 본시 우리나라의 신민인데, 한번 교회에 들어가면 관에서도 다스릴 수가 없고, 감히 두려움도 없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소송에 간여하여도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인명을 살상하여도 감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금번 3군의 민인들이 세폐를 건디지 못하여 일제히 모여서 호소한 것이 어찌 교인들에게 관계되었습니까? 그런데 군기를 빼앗아서 성을 함락시키고 발표하니 이게 역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 ▶ 제주에 파견된 평리원 안종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교민 가운데 309명, 평민 중에 8명인 것으로 전한다. 제주목에서 안종덕 검사에게 보고한 문서인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教民物故成冊)이 전하는 사망자 수는 교민 308명 평민 8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물고성책에 기록되지 않은 교민 희생자들이 46명 확인되어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교민 사망자는 354명이 된다. 박찬식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1902년에 제주에 있던 교민 강인봉이 서한에서 살해당한 교민이 350명에서 360명에 달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교안 극복 가능성 있었는가?

- ▶ 1894년 봄 예산 지역 선교사 레옹 퀴를리에 신부 증언

- ▶ 당대에도 앞에서 언급한 선교사들보다 먼저 이 면을 경계한 예를 루이 조제프 레옹 퀴를리에(Louis Joseph Léon Curlier, 1863-1935) 신부에게서 볼 수 있다. 대전교구가 펴낸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에 전해지는 1894년에 뮌헨 주교에게 보낸 연말 보고서에서 퀴를리에 신부는 예산 지역에서 신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진술한다.

- ▶ “이러한 새로운 개종이 대개는 하느님의 섭리로 서민 계층의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조선 양반층의 불의와 착취로부터 보호를 얻으려는 희망에서 천주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 양반들의 착취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 몇 해 전에는 어떤 세속적인 관심과 기대에서 천주교로의 개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천주교로의 개종은 신입 교우들에게 박해와 또 다른 유의 핍박을 야기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개종의 진실성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비자들이 세속 일에 교우 이름을 내세우거나 외교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충돌에서 교우란 이름을 무기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이 진술 뒤에 퀴를리에 신부는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뮌헨 주교에게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 ▶ “주교님 저의 하찮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교우들에게서 새로 생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에서의 우리의 불안한 정착 사정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이 두 상황이 모두 사실임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 ▶ 타케 신부 지침: 1899년 비라실의 회장들에게 선교사의 세력을 믿고 교회 안팎에서 사회 관계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면서도 강력한 형태로 지침 전달
- ▶ 첫째, 성당은 거룩한 집이니 그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잡아들이지 못한다.
- ▶ 둘째, 신자들이 모여 신부의 글(牌旨)을 사사롭게 주고받지 못한다.
- ▶ 셋째, 성당 안에서 수작을 부려 세속의 일을 조사하거나 논의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 ▶ 넷째, 신부의 지시가 없는 일을 비신자들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
- ▶ 다섯째 관청 송사에 관하여 정당한 까닭 없이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 ▶ 여섯째, 이 위에 보인 규식을 회장이 살피 어기지 못하게 하되, 만일 여기는 자가 있으면 신부에게 낱말이 알려야 한다.
- ▶ 일곱째, 이 조목이 내려진 뒤 여기는 자를 회장이 알고도 신부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회장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위텔 문서 1899-124)

教民條約 (1899년 준비)

- ▶ 西敎가 東國에 들어온 것이 이미 백여 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뜨거나 가라앉고 드러나거나 숨기거나 하였다. 丙戌(1886) 이전에는 나라의 禁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서로 전하여 받아 入敎한 국민들 수가 적지 않았지만 서교를 널리 퍼는 방법과 흔적이 심히 남을 꺼려 사사로이 금법을 범하여 화를 취한 자가 또한 수 없이 많았다. 丁亥(1887) 이후부터는 나라의 금법이 이미 풀려 교민도 점점 많아져서, 안으로는 漢城 五囂에, 밖으로는 지방 각 군의 사이사이마다 敎堂을 세우고 학교를 열어 그 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丙戌(1886)과 비교하면 다만 10배뿐이 아니었다.
- ▶ 대개 서교의 원류는 篤實하여 虛僞가 없으며 善을 좋아하고 義에 나아감인데, 대략 모두가 十戒 가운데 있다. 어찌 실과 터럭 사이일지라도 선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일로써 가르치리오? 근래의 어리석고 고지식한 人民들이 혹 이 敎의 本意를 깨우치지 못해 오늘 입교하고 明日에 領洗를 받으면, 스스로 말하기를 復讐와 嫌惡도 갚을 수 있으며, 冤痛함과 抑鬱함을 떨 수 있으며, 非理도 저지를 수 있고 不法도 행할 수 있다고 하여, 往往 分數를 범하고 紀綱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 진실로 그 弊端을 窮究해보면 다만 政令의 害가 되고 人民의 不幸만이 아니라, 또한 서교에서도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의논하여 조약을 맺으니 다음과 같이 列擧한다.

- ▶ 제1조 敎民의 保護 및 징집 사건은 지방국장과 주교가 타협하고 협상하여 규약을 세울 것.
- ▶ 제2조 전교사는 行政에 干預하지 말며, 行政官은 전교사에 關涉하지 마라.
- ▶ 제3조 敎民 중 만약 犯法者가 있으면 어느 지방을 논하지 말고 해당 관리가 붙잡았을 때 해당 지방 神父는 庇護하거나 隱匿할 수 없으며, 해당 관청의 隸輩[衙前]들이 칭하기를 足價로써 하여 만약 討索하는 弊端이 있으면 그 해당 예배를 단호하고도 마땅하게 엄히 다스려 해당 비용을 하나하나 推尋하여 返還할 것.
- ▶ 제4조 犯法한 敎民은 지방관 재판 때부터 해당 지방 신부가 직접 참석하여 干預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관은 決訟을 愛憎으로 할 수 없다.
- ▶ 제5조 각 지방의 敎民들이 神父의 지시 가르침을 자탁(藉托)하여 平民을 착거(捉去)하지 못할 것.
- ▶ 제6조 敎民 가운데 만약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혹 地方官吏와 관계되어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地方局에 來訴할 것인 즉, 地方局長은 그 지방에 사실을 조사토록 하여 공정히 판결할 것.

- ▶ 제7조 혹 敎中에 관계된 大事件이 있어 地方官이 능히 擅便(擅便)치 못하면 地方局長에게 조목조목 보고할 것이며, 그 지방 神父 또한 거듭 主教에게 보고한 즉, 主教와 地方局長이 서로 사실을 밝혀 상의하여 일을 결정할 것이요, 여기서도 擅便치 못하면 地方局長은 大臣에게 아뢰고 主教는 公使에게 보고하여 공정함에 이르도록 할 것.
- ▶ 제8조 敎民이 만약 의외의 橫厄을 당하여 平民이 연고 없이 원망을 받은 즉, 그 지방관은 특별히 庇護하여 越權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것.
- ▶ 제9조 어떠한 허락 사항을 막론하고 約定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계된 것이라도 약정이 이루어진 날을 논하지 말고 시행할 것.

광무 3년 3월 9일 내부지방국장 정준시
주교 민덕효

제주 교안 이후
라크루츠 신부와 타케 신부의 제주 동반



라크루츠 신부와 타케 신부와 뮌텔 주교의 제주민 인식

- ▶ 라크루츠 인식: 제주도 사람들에게 기사도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훌륭한 무리한 노릇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 (1903년 9월 1일)
- ▶ 제주도 사람들은 제일가는 도둑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 (1905년 10월 10일)
- ▶ 타케 신부 제주 사람 인식 "...제주 사람들은 무슨 짓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1906년 2월 8일자)
- ▶ 뮌텔 본부 연말 보고서: 1899년 거칠고, 다분히 미개하며, ... 미신적인 데에 매우 열중하는 그곳 주민들 자료집 4, 235 237(1901년 보고서)
- ▶ 1900년 원주민의 반야만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 237
- ▶ 1901년 이때까지 이 커다란 섬 안에서는 악마가 주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악마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가 자기의 패배를 복수하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237
- ▶ 뮌텔 주교 "악마의 복수"로 제주 교안 인식/ 원인 1. 미신적 풍습 2. 세금 주도/채구석의 상무사 237과 239

라크루츠 신부의 민중 사랑과 신성학교 설립

- ▶ 전사
- ▶ 뮌텔 주교는 1899년에 이미 페네 신부에게 제주도에 학교를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페네 신부는 비록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였지만, 1899년 10월에 이미 본당에서 청년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이렇게 표현한다. "제가 학교에 애착을 갖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종교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많은 관심이 갖고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학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 페네 신부가 1899년 10월 30일에 뮌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뮌텔 문서 번호: 1899-267).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4집, 37-43에서 인용.
- ▶ 페네 신부의 학교 설립 열망은 그의 제주 사목기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신성여학교 설립
- ▶ 라크루츠 신부가 이 열망을 이어받아서 실현시키는데, 그는 에밀 타케 신부와 이 계획을 함께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타케 신부가 1908년 9월 24일에 뮌헨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전한다. “일본인, 한국인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이교도들 할 것 없이 모두들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뒤쳐져 있습니다. ... 이곳 제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엽전도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제주 신앙 공동체는 라크루츠 신부의 헌신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 사실을 이렇게 전한다.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 에밀 타케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 뮌헨 문서 번호 1908-73

- ▶ 라크루츠 신부는 학교 건립에 호응한 한 후원자의 협력을 받고 1908년에 신성여학교 설립을 구체화해 가면서 이 계획을 이미 1908년에 뮌헨 주교에게 알리고 상의해 간다. (1909년 9월 5일에 뮌헨 주교에게 보낸 편지: 뮌헨 문서 번호: 1909-166) 그는 1909년 9월 5일에 뮌헨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수녀들을 교사로 파견받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다. 서울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는 김 마드렌 아나스타시아 수녀와 이 아가다 공사가 수녀를 파견하여 1909년 11월 22일(음력 10월 10일)에 제주로 떠났다. (한국샬트르수성바로로수녀회 100년사, 207: 11월 5일에 “장도에 올랐다” 고 했고, 출발한 후 “이 공사가 수녀는 독감으로 일주일간 목포에서 앓고 배를 타고서는 풍랑을 만나 다른 서에 닿아 일주일을 기다리는 등으로 인해 20일 만인 11월 25일에야 제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제주에 도착한 후 “마을까지는 말을 타고 들어갔다”: 같은 책, 985) 라크루츠 신부는 신성여학교 “개교에 관한 선언문”을 준비하여 제주 군수에게 보내어 수정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1910년 5월 15일에 뮌헨 주교에게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청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909년 10월 18일에 개교할 때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등 44명이 입학하여 많은 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1909년 9월 5일에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 뮌헨 문서 번호: 1910-61; 박재형, <최정숙>, 각, 2009, 68-70)

- ▶ 라크루츠 신부는 제주를 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일깨워 줬다. 신성여학교는 그가 제주민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을 드러내준다.
- ▶ 그가 채록한 “두 명의 고아”라는 노래는 제주민들의 아픔을 애절하게 형상화해서 전한다.

어린 까마귀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고
 어린 새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는데
 우리 언니와 나,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엄마라는 말을 알지도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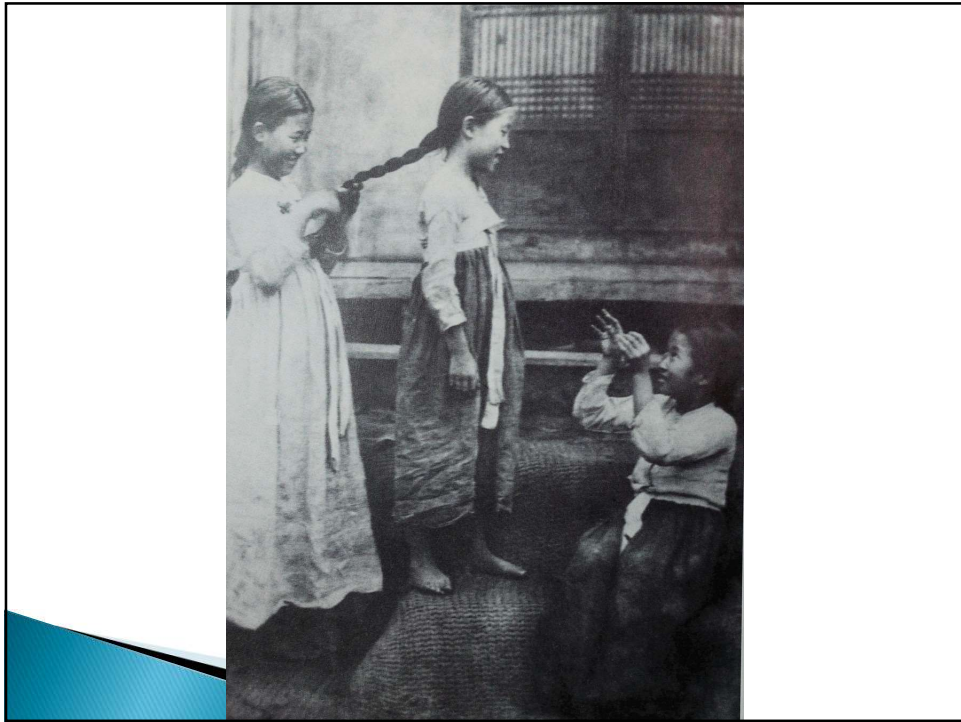
- ▶ 제주는 이런 곳이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큰 섬 제주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와 많은 비와 함께 살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며 사는 여자들이 많은 곳. 자연이 생명들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그 자연에서 두려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체험하며 살아 온 영혼들의 노래를 라크루츠 신부는 이렇게 워털루주교와 프랑스 미션 가톨릭 독자들에게 보내 생명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공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의 고귀함과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 ▶ 라크루츠 신부는 1910년 1월 제주 여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존재를 표현하는 고귀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 ▶ 제주도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비판하던 그가 이렇게 하느님의 살림 안에서 생명과 생명, 문화와 문화를 이어 주면서 제주와 한국과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대면을 동반해 가고 있었다. 그가 신성여학교를 설립하여 제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헌신한 데는 바로 이런 제주민 사랑이 밑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 강제 폐교

▶ 드망즈 주교는 1917년 남긴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1916년 전부터 두 선교사에 의해 복음화 되어 온 제주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번창했던 학교(신성여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목포의 주임 타케 신부는 (제주) 두 곳의 사제관이 다시 주인을 맞이하게 될 먼 훗날을 기다리며 1년에 두 번 이 큰 섬의 교우들을 방문하러 갑니다.”

▶ 1946년 9월 3일 신성여학교 다시 열다/ 최정숙 교장(<최정숙>, 186-8)

라크루츠 신부의 민중 이해와 동반

- ▶ 라크루츠 신부는 제주도 주민들이 야만적이라고 판단했었다.
- ▶ 그런 그가 이 주민들의 의식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이들 가운데 얼마나 깊은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특히 제주도 여자들이 부르는 민요 채집을 통해서 확인해 간다.
- ▶ 그는 뤼텔 주교에게 자기가 채집한 민요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가 고아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 노래는 감상적인 어조를 띤 제주말로 된 단아한 곡입니다.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러 오는 이교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이 관계되는 것은 그들이니까요.”

라크루츠 신부의 서한(1910. 1. 21.) 뤼텔 문서 번호 1910-12

- ▶ <미션 가톨릭>의 편집장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주도의 민요 노래들을 적어 보냅니다. 주교님께서 이 노래들을 읽어 보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에게 보내주십시오. 샤르즈뵈프 신부는 제가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표명하지 않고 그에게 써보냈었던 한 통의 편지를 이미 <미션 가톨릭> 편집장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미션 가톨릭>에 진 빛을 갠 어떤 선행을 하기 위한 재원을 찾기 위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션 가톨릭>에 진 빛이 제게는 너무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 ▶ 이 노래들은 제목도 없고 그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문장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장들뿐입니다.
- ▶ 제가 고아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 노래는 감상적인 어조를 띤 제주말로 된 단아한 곡입니다.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러오는 이교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이 관계되는 것은 그들이니까요. 수녀님들이 이 작은 노래집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들이 제게 3부를 복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것이 샤르즈뵈프 신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이것을 직역하여 그에게 복사본을 1부 보낼 것입니다.

- ▶ <미션 가톨릭> 편집장님께, 편집장님의 독자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노래 몇 개를 모아 번역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의 고귀함과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대로 이 노래들이 편집장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모으겠습니다. 제가 모아 놓은 곡들 거의 모두가 그리움의 고통스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문은 그녀들에게 닫혀 있고, 그녀들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노래들이 여자들의 노래이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대한 생각, 마리아께 대한 자식으로서의 시
- ▶ 선, 삶과 죽음은 덜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편집장님, 미천한 종이 드리는 심심한 경의의 표시를 받아 주십시오.

▶ 고아의 노래

새야! 새야! 제비 왕국의 새야!
 우리 엄마 만나거든
 "네 딸이 울고 있다"고 말해 주렴.
 "내 딸이 어디서 울고 있냐?"고 물으면
 큰길 네거리에 앉아
 어디로 갈지 몰라 울고 있더라고 말해 주렴

▶ 어미를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떠나면, 엄마를 만나겠지.
내가 가지 못하면, 엄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리.
원하고, 원하고, 원하던 물,
손바닥 가득 물을 마시면 용기가 생기리라 말들 하지.
정(情)이여! 그 정을 만족시키고 싶어라.
그냥 칼로 베러 가거라.
남쪽 바다 저쪽에서 온 새야,
일본에서 온 새야,
오늘 떠나자 내일 떠나자 하는구나.
이슬이 큰 대나무의 큰 잎을 덮었으니,
날개가 젖어 더 이상 너를 날아오르게 할 수 없구나.
슬프고, 슬프고, 슬프다고 너는 말하는구나.
나 역시, 내 정이 나를 슬프게 하네.
절로 눈물이 흐르네!

▶ (여인들은 벼를 찢으며 항상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면서 응...응...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쉬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벼를 찢기 위해 내는 긴 한숨일 뿐입니다. 이 노래에서 '응' 소리는 문장이나 그 끝부분을 대신합니다.)

▶ 방아타령

어이! 저기 아리따운 아가씨
이 쌀을 찢게 우리를 도와줘.
네가 산 넘어 시집가면
네 시아버지가 목사이기를.
응...응... 그의 성미가 너무 까다로우면
너무 까다롭게 하면 우리를 세 형제에게 오너라.
그의 걱정을 부숴버리리라.
우리가 너를 위해 그의 격렬함을 부숴 주리라. 응...
사랑받는 것들이 사람들이듯
미움받는 것들도 사람들이네.
때때로 재미로 다른 이의 첩이 돼 보고
때때로 이곳저곳에서 기분 풀이해 보렴.
소나무의 바람이 다른 이의 첩처럼 소리를 내고,
모든 이로부터 거절당하고 우롱당한 정숙한 여인과의 살림은
둘 사이에서 불가능하다.
돌들이 굴러간다. 바위가 가능하다.

▶ 아기의 노래

작은 키에 뚱뚱한 몸
치맛자락에 목화 씨 감추고
벌써 25리 걸었다고 믿으며
문에서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네.

▶ 흥년

산꼭대기 쪽을 바라보라.
사람들은 검은 밀을 베고 새파란 논이 벼를 베는데,
응...응...
아픈 마음에 나는 울기만 하노라.

▶ 깨진 사랑

그는 말했다. 망각과 함께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나,
나는 그를 잊을 수 있을까?
그를 잊고 나는 살고 싶을까?
이 모든 많은 것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네.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절로 눈물이 말을 하네.

여인들의 욕망

- ▶ 여인의 길, 눈물의 길, 비참한 길
- ▶ 나는 더 이상 너를 생각지 않네.
- ▶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기를
- ▶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현인'으로 태어나기를
- ▶ 우리 언니와 내가 죽거든
- ▶ 앞산에다 묻지 말고
- ▶ 뒷산에다 묻지 말고
- ▶ 가지 밭에 묻어 주오.
- ▶ 우리 위에 가지가 자라거든
- ▶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 ▶ 우리 임금에게 바쳐주오.
- ▶ 우리 언니와 나를 자비로운 영혼으로 여기도록
- ▶ 내가 죽거든, 닥나무 밭에 묻어주오.
- ▶ 내 위에 닥종이가 자랐거든, 가장 훌륭한 선비의
- ▶ 붓 아래 그것을 놓아주오.
- ▶ 평온한 내 마음은 더 이상 원이 없으리라.
- ▶ 내가 죽거든
- ▶ 나는 꽃이 되리라.
- ▶ 내가 죽거든, 나비가 되거라.
- ▶ 꽃과 나비는
- ▶ 함께 노나리.

▶ 해녀들의 노래

바다에는 파도의 목소리
집에는 시어머니 목소리
몸은 작은데, 목소리는 참으로 크구나.
머리카락부터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양식을 가져가라. 큰 섬으로 가거라.
앞서가는 우리는
미역이 잘 자라는 바다 밑 아름다운 들판으로 간다.
미리 떠난 다른 이들은 감태가 자라는 자갈밭으로 가거라.

▶ 두 명의 고아

어린 까마귀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고
어린 새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는데
우리 언니와 나,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엄마라는 말을 알지도 못할까.

에밀 타케 신부의 파견

- ▶ 1900년 5월부터 그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적었던 항구 도시 마산포로 옮겨서 한 신자 집에 머물면서 마산 본당을 창설하여 사목을 전개하였다. 그는 당시 범골 오늘의 완월동에 본당 자리를 마련하여 오늘의 마산교구 완월동 성당의 기초를 놓으면서 마산 지역의 복음화에 헌신하였다.
- ▶ 타케 신부가 마산 본당에서 사목하는 동안 제주 교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마산의 타케 신부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마산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마산 사회에서도 신자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 ▶ “제주 사건은 이곳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외교인들은 제주에서 사람들이 교우들을 모두 학살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왜 그런 일을 못하겠는가? 라고 서슴치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우들과 예비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소문들이 헛소문에 불과했으면 합니다.”

- ▶ 라크루 신부와 함께 제주도에서 사목하던 무세 신부는 교안이 진정된 후 뮌텔 주교에게 한논 본당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다. “저는 주교님께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뮌텔 주교는 무세 신부에게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뮌텔 주교의 뜻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뜻을 재차 확인시킨다. “현재로선 주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교님께 고백하건대, 만일 저를 옮겨 주실 판단을 내리신다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주교님이 임명하시는 곳에 항상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만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저의 처음의 요청을 철회할 용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제 심정입니다.” 무세 신부는 선교사들 피정 때 다시 명확하게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뮌텔 주교에게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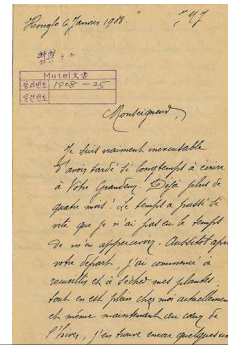
- ▶ 뮌텔 주교는 무세 신부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여서 1902년 4월 20일 타케 신부를 한논 본당으로 무세 신부를 타케 신부가 열어 놓은 마산 본당 공동체로 이동하여 사목하게 한다.
- ▶ 뮌텔 주교는 타케 신부의 이동과 관련하여 1902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제주도는 작년의 무서운 학살 후 상황이 극히 어려워져서 라크루 신부와 함께 타케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 지역의 본당은 제주성에서 70리 떨어진 섬 남쪽에 있습니다.”
- ▶ 타케 신부는 1902년 5월 31일에 제주에 도착하는데, 그가 부임한 직후 뮌텔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 피정을 위해서 본당을 떠나서 “신부들이 없는 동안 특별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 ▶ 뮌텔 주교는
- ▶ 무세 신부에게 죽을 때까지 한논 본당에서 사목하라고 했었는데,
- ▶ 왜 타케 신부를 한논 본당으로 파견했을까?

- ▶ 타케 신부가 1899년 10월에 뮌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
- ▶ “저의 교우들은 주교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우들이 아닙니다. 저의 진짜 교우들은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수상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우로 자처했던 외교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뮌텔 문서 1899-245 (1899년 10월 4일) 진주



- ▶ 타케 신부 지침: 1899년 비라실의 회장들에게 선교사의 세력을 믿고 교회 안팎에서 사회 관계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면서도 강력한 형태로 지침 전달
- ▶ 첫째, 성당은 거룩한 집이니 그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잡아들이지 못한다.
- ▶ 둘째, 신자들이 모여 신부의 글(牌旨)을 사사롭게 주고받지 못한다.
- ▶ 셋째, 성당 안에서 수작을 부려 세속의 일을 조사하거나 논의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 ▶ 넷째, 신부의 지시가 없는 일을 비신자들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
- ▶ 다섯째 관청 송사에 관하여 정당한 까닭 없이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 ▶ 여섯째, 이 위에 보인 규칙을 회장이 살피 어기지 못하게 하되,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신부에게 낱말이 알려야 한다.
- ▶ 일곱째, 이 조목이 내려진 뒤 어기는 자를 회장이 알고도 신부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회장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위텔 문서 1899-124)

- ▶ 타케 신부가 1902년 5월 31일에 제주에 도착하여 한논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그를 시험하는 사건을 겪게 된다. 그가 표현하기로 “서귀의 불한당” 송시백이라는 사람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벼 두 섬”을 타케 신부에게 빌리러 왔다. 타케 신부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그가 벼 값의 두 세 배에 해당하는 돈이나 어음을 맡기는 조건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하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더는 타케 신부를 찾아오지 않았다.
- ▶ 이런 상황에서 한논 지역에 살던 박재순이라는 신자가 술에 취하여 양시중이라는 노인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재순이 노인을 때리고 그의 탕건을 찢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의 촌장이 “이에 대해 불평하는 꽤 무례한 편지”를 타케 신부에게 보냈다. 타케 신부는 촌장에게 그가 직접 오거나 사람을 보내면 그 앞에서 박재순이 처벌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리라고 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타케 신부는 “그 다음다음날 박가를 회초리로 50대를 치라고 말하고 찢어진 탕건 값으로 4냥을 보냈”다. 타케 신부는 이렇게 처벌과 보상 행위를 통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지어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6월 13일에 “술에 취한 일본인 열세 명이 일장기를 펼쳐 들고 소총 두 자루, 창 두 개와 곤봉을 들고 박가의 집에 도착”해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인들을 조종해서 이 사건을 만든 주범은 송시백이라는 것이 타케 신부의 판단인데 이때 그는 이것은 타케 신부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았다.

- ▶ 이 사건은 당시 제주민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선교사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데, 타케 신부는 서귀인들이 한 말을 이렇게 전한다. “천주교도들에 대해서 왜 체면 차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프랑스 신부로 말하자면, 만약에 그가 움직이는 날에는...” 일본인들은 “여기 오기 전인 13일”에 “칼과 창을 갈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뫼텔 주교에게 전한다. “천주교도들은 잡아 죽여도 괜찮아.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유럽 사람으로 말하자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힘이 같으니 우리가 함께 싸워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타케 신부는 “다행히 저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라크루츠 신부는 타케 신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서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타케 신부 역시 뫼텔 주교에게 “만일 제가 분개한 대로만 행동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언제 다시 갈등과 대결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대결 구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타케 신부는 1905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조종환과 여러 차례 대립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조목사는 신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면서 “마을 유지들이 등을 돌리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에 있을 법한 폭동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폭동이 신자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자들이 맨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견한다. 비록 소문이 아직은 대수롭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타케 신부는 뫼텔 주교에게 이렇게 진술한다. “만일 폭동이 가까워져 오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는 대신 제 신자들과 함께 남을 것임을 주교님께 알려 드립니다.”
- ▶ 하지만 다행히도 타케 신부와 제주도 한은 본당 신앙 공동체는 이같은 폭동에 더는 휘말리지 않고 신앙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었다. 타케 신부는 1902년에 뫼텔 주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긴장 속에서 동반한 한은 본당 공동체의 상태를 이렇게 전한다.
- ▶ “본인 생각에는 많은 신입 교우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살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정은 여전히 적의에 차 있습니다.”

- ▶ 타케와 라크루츠 두 신부는 산북과 산남, 제주 북부와 남부를 맡아서 사목하면서 동료 사목자로서 깊은 우애 속에서 제주도 민중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타케 신부가 제주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삶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위에서 보았는데, 라크루츠 신부 역시 제주 교안 직후 “경질되지 않는 한 남아 있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해서 제주도 민중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단과 사랑으로 제주 사회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간다.
- ▶ 뫼텔 주교는 파리의방전교회 본부에 보내는 1903년 보고서를 통해서 이 두 선교사의 사목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전한다.
- ▶ “제주도의 라크루 신부와 타케 신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살을 면한 작은 양떼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용기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 ▶ 제주도의 두 선교사 타케 신부와 라크루츠 신부는 깊은 우애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 사목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는데, 이 점은 제주 사건 이후 신앙 공동체가 제주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려서 상호 대화와 공명 과정으로 진입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 ▶ 타케 신부는 라크루츠 신부가 “제주에서 잘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증언한다. “라크루 신부...는 이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904년 12월 16일자 편지)
- ▶ 후에 라크루츠 신부가 “제주도에서 아주 멀리 떠나 보내주시기를” 뮌헨 주교에게 청하였을 때, 타케 신부는 “주교님께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제안한 일”을 라크루츠 신부에게서 전해들었다면서, 라크루츠 신부가 떠나면 자기는 “이 훌륭한 이웃이며 좋은 동료이며 친구인 그를 무척 아쉬워할 것”이라면서 “그를 ... 임지에 그대로 두실 것을 간청”한다. 라크루츠 신부는 이들의 우애는 이토록 깊었는데, 선교사들의 이런 우애 속에서 제주 민인들과의 관계도 복음적으로 깊게 익어 갔다. (1904년 7월 22일에 뮌헨 주교에게 보낸 편지/ 뮌헨 문서 번호: 1904-119)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 채집

- ▶ 1908년 1월 6일 홍로에서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
- ▶ 주교님께서 떠나신 후(뮌헨 주교는 1907년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다) 저는 곧 여러 가지 식물을 거두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집안에 가득한데 요즘도 저는 추위와 북풍에 잘 견뎌낸, 제게 없는 식물들을 몇 가지 여기 저기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 ▶ 저는 아직도 두 송이의 십자화와 두 송이의 성상화를 건조통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분류하는 일인데 포리 신부의 식물도감 덕분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 ▶ 제게는 약 50종의 풀밖에 없는데 어느 과에 정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몇 년 동안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포리 신부 자신도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거의 가을 풀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철 이른 풀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고 제가 거의 예비 작업밖에 하지 못했던 지난해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1년 내내 풀들을 거둔다면 1,500 내지 2,000 종류의 풀이나 적어도 잎사귀만이라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중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포리 신부가 지난 봄에 거둔 것들의 표본을 제게 보내 주었으니 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저 혼자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엔 이끼와 지의류도 채집해야지요.
- ▶ 저는 하루에 적어도 여덟 시간씩 풀들을 돌보는데 때로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심심할 사이가 없으며 심신이 편안합니다.

- ▶ 드리옵테리스 타케티(*Dryopteris Taqueti*) 로제 타케티(*Rose Taqueti*), 디프라지움 타케티(*Diplazium Taqueti*) (선교사열전에서)
- ▶ 섬잔대(*Adenophora taquetii* Leveille), 뽕잎피나무(*Tilia taquetii* Schneider) 등 13종 (선병윤 교수의 저서 참조)
- ▶ 1908년 왕벚나무 1921년 구상나무
- ▶ 1906년에는 서흥리 성당 프랑스 신부 타케(사진)가 제주의 식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타케신부는 수 만점의 표본을 제작하여 유럽의 대학이나 박물관 등에 보냈다. 일본인 식물분류 학자인 나카이는 1913년 제주도에서 약 1개월간의 식물조사와 타케 신부가 채집한 식물표본을 감정한 후, 1914년 제주도의 식물상을 정리하여 1433 분류군을 발표했다. 1921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월슨이 구상나무를 신종으로 발표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을 대표하는 식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세계유산을 빛낸 사람들](15)-제4부 타케의 제주식물 재발견(상)

20세기초 유럽에 제주식물 전파한 신부이자 식물학자

강서영 기자 / sykang@hallailbo.co.kr 2009. 09.16

<http://m.halla.com/Article/Read/1253026800309164186>

- ▶ Taquet 신부 매년 술한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채집 계속, 구미의 박물관에 계속해서 매각
- ▶ 그 스스로 소장한 것도 7000여 점
- ▶ Nakai 총독부의 명을 받아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환영하였고 그가 수집한 전부를 제출 받음
- ▶ Nakai의 술회 :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많은 종류의 식물표본을 수집 했다 해도 이 섬 식물대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람의 수집이 그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

- ▶ 한라산에서 채집된 제주특산 식물들이 100년만에 공개됐다. 1900년대초 한라산에서 채집돼 서양에 보내졌던 제주 특산식물의 실물 표본사진을 본보가 입수한 것이다. 이 표본은 대전대학교 김주환 교수(생물학과)가 영국 왕립식물원과 대영박물관에서 지난 1999년부터 4년여간 연구원과 교환교수로 활동하는 기간에 직접 찍은 것으로 이 중에는 한라산 식물도 수십여종에 이른다. 표본은 1900년대초 서귀포 서흥성당에서 포교활동을 했던 프랑스 타케신부, 그리고 당시 일본 아오모리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중 타케와 함께 한라산 식물을 조사·채집했던 프랑스 포리신부가 채집해 유럽에 보냈던 것으로 현재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 ▶ 본보가 김 교수로부터 입수한 표본사진은 한라꽃창포와 한라개승마, 좀갈매나무 등 세 종으로 모두 특산식물이다.
- ▶ 이 표본들은 19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채집된 것들이다. 이들 표본은 타케와 포리 신부를 통해 프랑스의 레빌레(Leveille)박사에게 보내졌다. 표본에는 채집자와 채집일 및 장소, 명명자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제주도가 식물의 보고임을 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실물표본들이다.

- ▶ 이들 표본들은 영국의 Hooker, Bennet, 독일의 Schlechter, Schneider, Winkler, 볼란서의 Leveille, Vaniot 등 여러 식물분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발표되었으며 신중으로 잇따라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실제 타케가 보내 명명된 식물로는 섬잔대, 한라부추, 왕밀사초, 섬잔고사리, 갯취, 좁갈매나무, 제주가시나무, 한라평의다리, 뽕잎피나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로써 서양에 제주식물의 존재와 가치가 비로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 ▶ 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 박사는 타케를 이렇게 평가한다. "식물채집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시로서는 모두가 특산식물들로 기록됐던 다수의 새로운 종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식물학을 전공한 학자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 현재 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은 세계의 유명한 표본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본의 동경대학과 국립과학관에도 있으나 한국에는 남아 있지 않다. 사후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과 식물분류학 자료들이 대구 천주교 주교관내 도서관에 보존되어 오다가 1964년 12월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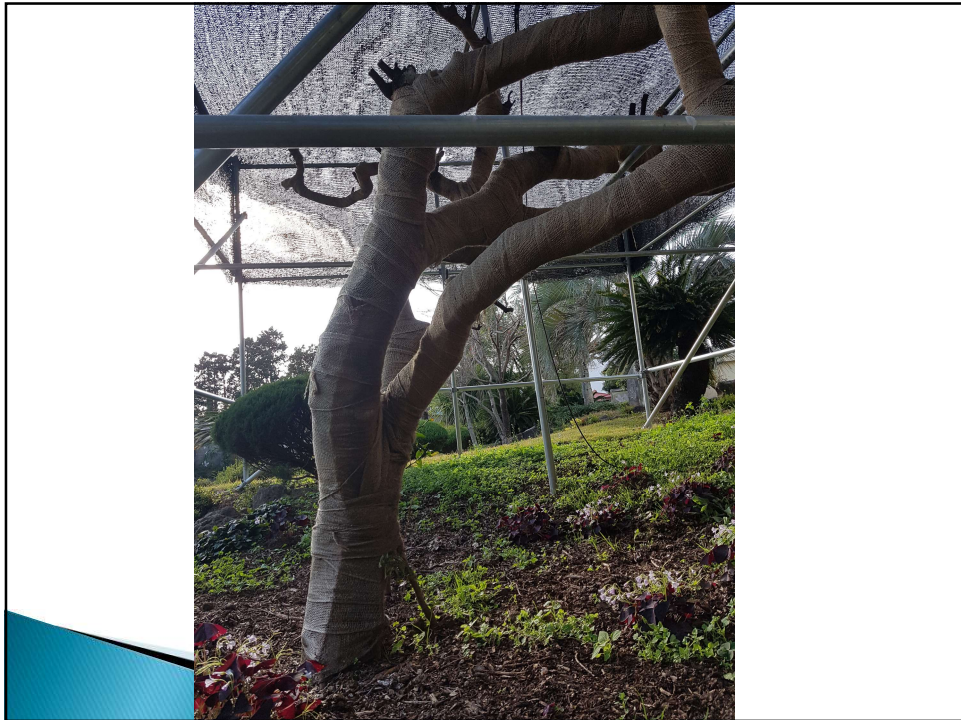
- ▶ [제주 세계유산을 빛낸 사람들](16)-제4부 타케의 제주식물 재발견(하)
- ▶ 관음사 일대서 왕벚나무 첫 채집...세계적 자생지 기원
-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253631600309774186&spage=1>
- ▶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2009. 09.23.
- ▶ 제주도 특산식물인 왕벚나무도 타케가 1908년 4월 14일 관음사 일대에서 채집한 표본(표본번호 4638번)을 기준으로 독일의 케네(Koehne) 박사가 왕벚나무로 감정함으로써 이 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표본은 자생 왕벚나무의 표본으로서는 최초이다.
- ▶ '나비박사' 석주명은 1942년 '문화조선(文化朝鮮)' 제주특집란에 "서귀포에서 북쪽 2리에 살고 있던 타케는 기회만 있으면 한라산에 들어가 식물표본을 채집, 이를 구주의 학계에 보내고 있었다. 명치 41년(1908) 4월 14일 그는 관음사 부근(해발 600미터)의 한 그루의 벚나무에 꽃이 달려 있는 것을 채취, 자신의 채집번호 4638호의 넘버를 달아 구주에 보냈다"

▶ 정은주 교수

- ▶ Leveille는 다케 신부 (주로 제주도)와 포리 신부 (한국의 다른 지역)가 보낸 표본으로 무려 250여개의 신종을 기재하였다고 한다. Leveille가 받은 표본들은 대부분 영국의 에든버러 왕립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동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표본관에 보관되고 있다 (장진성, 2010).
- ▶ 팽나무 (*Celtis* spp.), 층층나무 (*Cornus* spp.), 개암나무 (*Corylus* spp.), 애기병꽃나무 (*Diervilla* spp.), 구상나무 (*Abies* pp.) 등 목본 식물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다케 신부가 채집했다

온주밀감

- ▶ 페네 신부의 편지를 보더라도 귤은 이미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었다. 귤은 특히 임금에게 보내는 제주 특산물이었는데, 재배가 까다로워서 제주민들은 귤 농사를 자신들의 생활과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 ▶ 그런데 타케 신부는 1911년에 함께 식물 채집을 해 온 포리 신부에게 제주산 왕벚나무를 보내고 답례로 포리 신부에게서 일본산 온주밀감温州蜜柑 10여 그루를 선물받는다. 그는 온주밀감을 현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 '면형의 집' 이 들어서 있는 홍로 본당 터에 심었다.
- ▶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서 온주밀감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이후 주변 농민들에게 온주밀감 나무를 나누어주었다. 일본인 미네가 밀감이 자라는 것을 보고 1913년 서귀포 서흥동에 처음으로 '제주과원'이라는 농장을 열어서 밀감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제주도는 밀감 특산지로서 새로운 경제 살림 시대를 열어 가게 되었고, 밀감나무는 제주도민의 생명줄이 되어 주었다.



제주 식물들과 대화-찬양의 연대 확장

1906년(33세)

- ▶ 9월~11월 - 제주도를 방문한 포리 신부(59세)와 함께 첫 번째 식물 채집(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1,500미터 지대까지), 한라돌쩌귀, 구슬꽃나무, 산매자 채집

1907년(34세)

- ▶ 5월~10월 - 포리 신부와 함께 두 번째 식물 채집(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정상까지),
- ▶ 구상나무, 향유, 화살나무 등 채집 - 5월 17일, 19일 한라산 1,500미터 지대까지 채집, 해발 1,400미터에서 구상나무(쿠살낭) 발견 - 6월 홍로 부근 채집 - 7월 백록담까지 조사 - 8월 영실을 거쳐 한라산 정상까지 조사, 타케 신부의 이름이 종소명으로 현명된 거이삭여뀌(*Persicaria taquetii* (H.Lév.) Koidz.) 채집 - 8월 12일 - 포리 신부와 함께 제주도로 온 뮌텔 주교 만남 - 9월~10월 두 차례 한라산 기슭에서 정상까지 조사, 한라개승마 (*Aruncus aethusifolius* (H. Lev.) Nakai), 두메대극 (*Euphorbia fauriei* H.Lév. & Vaniot ex H.Lév.), 왕모람(*Ficus pumila* L.) 등 채집, 우리나라 특산종 발견

1908년(35세)

- ▶ 2월~10월 - 첫 단독 식물 채집(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정상까지), 왕벚나무 표본 4638, 특산식물 가시복분자 등 채집 - 2월 홍로 부근과 바닷가 채집 - 4월 두 차례 채집(8일 홍로 일대, 14일 한라산 600미터 지점) * 14일 제주벚나무(왕벚나무 표본4638) 채집(교토대학교 식물표본실에 표본 보존), 한라산 남측 600미터 지점 관음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검토 필요 - 5월 네 차례 채집(5일, 8일, 10일, 12일) * 12일 우리나라 특산식물 가시복분자 채집 - 6월 두 차례 채집(6일 한라산 1,000미터 지대까지 조사, 8일 경작지 근처) - 8월 일곱 차례 채집(12일, 13일 한라산 정상까지, 17일 한라산 1,600미터 지대까지, 20일, 22일, 25일 새섬, 28일) * 13일 두잎감자난초 채집(도쿄대학교 소장) - 9월 열두 차례 채집(2일, 4일(한라산 정상까지), 7일(영실 부근), 10일, 14일, 17일(영실 부근), 18일(영실 부근), 19일(정상까지), 22일(영실까지), 23일, 25일, 27일(영실까지) - 10월 다섯 차례 채집(2일, 6일, 20일, 25일, 30일(중문면 도순리 근처의 녹나무 채집, 산방산에서 채집) * 25일 구산에서 애기나비나물(*Vicia unijuga* var. *kausanensis* H. Lév.) 채집

1909년(36세)

- ▶ 5~10월 - 제주도 밖에서의 첫 번째 식물 채집(목포, 인천) 및 제주도 안에서의 채집(한라산 정상까지), 능수버들, 산버들 등 채집 - 5월 제주도 외 지역 채집, 목포에서 큰구슬봉이, 인천에서 특산종인 능수버들 채집 - 6월 한라산 정상까지 두 차례 등반, 1,200미터 고지에서 우리나라 특 산종 제주산버들 채집 - 8월 한라산 1500미터 지대에서 특산식물 떡버들 채집 - 10월 한라산에서 돌외 채집
- ▶ 1910년(37세) 4월~10월 - 후박나무, 아그배나무, 좁갈매나무 등 채집 - 7월은 채집품 가장 많은 달로 다섯 차례 채집(1일, 2일, 4일, 6일, 15일) 1911년(38세) 3월~12월 - 5월 참나무류 채집, 검은딸기 채집(도쿄대 소장) - 6월과 8월 백록담까지 올라 특산종 한라장구채와 한라송이풀, 섬잔대 등을 발견, 섬잔대(*Adenophora taquetii* H. Lév.)는 발견자 타케 신부의 이름으로 현명됨. 이 밖에 왕쌈배, 줄참나무, 산철쭉, 진달래, 추분취 등 채집 - 12월 왕모람 채집 - 온주밀감을 제주에 최초로 도입, 포리 신부로부터 감귤 묘목 14그루를 받아서 제주도에 심음
- ▶ 1912년(39세) 4~6월 - 4월 14~16일 삿갓 사초, 청사초 및 섬싸리냉이 등 채집 - 6월 15일 1,500미터 고지, 8월에는 600미터 고지를 살핌 정홍규, <에밀 타케의 선물>, 다빈치, 2013, 247-8에서 인용

- ▶ 정홍규 신부는 타케 신부가 찾아서 세계에 소개한 식물들의 규모를 추적하여 이렇게 진술한다. “세계의 식물원 곳곳에 타케티와 컬렉터 타케 식물들이 있다. 세계의 식물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탐색해본 결과, 종소명에 타케의 이름이 들어간 타케티 125종과 타케의 채집본이 있는 컬렉터 타케 식물 1,670종을 찾을 수 있었다.”

- ▶ 일본 도쿄대 부속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27종, 타케티 2종) http://umdb.um.u-tokyo.ac.jp/DShokubu/herbarium/en_ver2/index.php
- ▶ 타케티 겨이삭여뀌(*Polygonum taquetii* H.Lév.) 섬평의비름(*Sedum taquetii* Praeger)

- ▶ . 미국 하버드대 아널드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120종, 타케티 16종) <https://kiki.huh.harvard.edu/databases/>
- ▶ 타케티 제주산버들(*Salix taquetii* H. Léveillé) 바위수국(*Hydrangea taquetii* H. Léveillé) 제주가시나무(*Rosa taquetii* H. Léveillé) 까마귀베개(*Micro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청미래덩굴(*Smilax taquetii* Léveillé) 천선과나무(*Ficus taquetii* H. Léveillé & Vaniot) 채진목(*Pyrus taquetii* H. Léveillé) 아그배나무(*Crataegus taquetii* H. Léveillé) 좀갈매나무(*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녹나무(*Cinnamomum taquetii* H. Léveillé) 담쟁이덩굴(*Vitis taquetii* H. Léveillé) 광나무(*Ligustrum taquetii* H. Léveillé) 가새덜평나무(*Viburnum taquetii* Léveillé) 백량금(*Ardisia crispa taquetii* H. Léveillé) 한라평의다리(*Thalictrum taquetii* H. Léveillé) 화살나무(*Micro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 ▶ 영국 큐왕립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97종, 타케티 19종) <https://www.kew.org/>
- ▶ 타케티 두메담배풀(*Carpesium taquetii* H.Lév.) 사마귀풀(*Murdannia taquetii*) 하늘지기(*Fimbristylis taquetii* Palla) 참지네고사리/반들고사리(*Dryopteris taquetii* Christ) 참골무꽃(*Scutellaria taquetii* H.Lév. & Vaniot) 아그배나무(*Crataegus taquetii* H.Lév.) 한라송이풀(*Pedicularis taquetii* Tsoong) 뽕잎피나무(*Tilia taquetii* C.K.Schneid.) 한라노루오줌(*Astilbe thunbergii* var. *taquetii* H.Lév.) 흰도깨비바늘(*Bidens taquetii* H.Lév. & Vaniot) 녹나무(*Cinnamomum taquetii* H.Lév.)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손바닥난초(*Gymnadenia taquetii* Schltr.) 섬평의비름(*Sedum taquetii* Praeger) 광나무(*Ligustrum taquetii* H.Lév.) 겨이삭여뀌(*Polygonum taquetii* H.Lév.) 개미자리(*Sagina taquetii* H.Lév.) 해변취/큰각시취(*Saussurea taquetii* H.Lév. & Vaniot) 올챙이고랭이(*Schoenoplectus taquetii* Palla.)

- ▶ 영국 자연사박물관(컬렉터 타케 식물 88종, 타케티 4종) <https://data.nhm.ac.uk/>
- ▶ 타케티 반들고사리(*Dryopteris taquetii* Christ) 뽕잎피나무(*Tilia taquetii* Schneid) 죽대(*Polygonatum taquetii* H.Lév. & Vaniot) 좀고추나무(*Hypericum taquetii* H.Lév. & Vaniot)

- ▶ 영국 에든버러왕립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926종, 타케티 57종)
<https://www.rbge.org.uk/>
- ▶ 타케티 섬잔대(*Adenophora taquetii* H.Lév.) 한라노루오줌(*Astilbe taquetii* (H.Lév.) Koidz.) 싸리냉이(*Cardamine taquetii* H.Lév. & Vaniot) 매꽃(*Convolvulus taquetii* H.L.)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한라송이풀(*Pedicularis taquetii* Tsoong) 제주큰물통이(*Pilea taquetii* Nakai) 겨이삭여뀌(*Polygonum taquetii* H.Lév.) 좀갈매나무(*Rhamnus taquetii* (H.Lév. & Vaniot) H.Lév.) 제주가시나무(*Rosa taquetii* Levl.) 줄말(*Ruppia taquetii* H.Lév.) 털기름나무(*Seseli taquetii* H.Wolff) 갯장구채(*Silene taquetii* H.Lév.) 뽕잎피나무(*Tilia taquetii* Schneider) 갯취(*Senecio taquetii* H.Lév. & Van.) 촛대승마(*Cimicifuga taquetii* Leveille) 사마귀풀(*Aneilema taquetii* H. Lév.) 백랑금(*Ardisia crispa* (Thunb.) A.DC. var. *taquetii* H.Lév.) 흰도깨비바늘(*Bidens taquetii* H.Lév. & Vaniot) 섬거북꼬리(*Boehmeria taquetii* Nakai) 유채(*Brassica oleacea* L. var. *taquetii* H.Lév.) 겨자(*Brassica taquetii* H.Lév.) 송금나무(*Callicarpa taquetii* H. Lév.) 좀담배풀/두메담배풀(*Carpesium taquetii* H.Lév.) 녹나무(*Cinnamomum taquetii* H.Lév.) 탐꽃(*Calamintha taquetii* Leveille and Vant.) 좁은잎영경귀(*Cnicus taquetii* H.Lév. & Vaniot)

- ▶ 화살나무(*Microrhamnus taquetii* H. Lév.) 아그배나무(*Crataegus taquetii* H. Lév.)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Diplazium taquetii* C.Chr.) 율판나물아재비(*Disporum taquetii* H.Lév.) 반들고사리/참지네고사리(*Dryopteris taquetii* Christ.) 우산물통이(*Elatostema taquetii* H. Lév.) 천선과나무(*Ficus taquetii* H. Lév. & Vaniot) 가는네잎갈퀴(*Galium taquetii* H.Lév.) 큰구슬봉이(*Gentiana taquetii* H. Lév.) 바위수국(*Hydrangea taquetii* Levl.) 뚱딴지(*Inula taquetii* H.Lév.) 뿌리뱅이(*Lactuca taquetii* H. Lév. & Vaniot) 광나무(*Ligustrum taquetii* H. Lév.) 어리연꽃(*Limnanthemum taquetii* H.Lév.) 애기괭이밥(*Oxalis taquetii* Kunth) 궁궁이(*Peucedanum taquetii* H.Wolff) 섬질경이(*Plantago taquetii* H.Lév.) 애기풀(*Polygala taquetii* H.Lév.) 개구리갯(*Ranunculus taquetii* H.Lév.) 한라진달래(*Rhododendron taquetii* H.Lév.) 추분취(*Rhynchospermum taquetii* H.Lév.) 명석딸기(*Rubus taquetii* H.Lév.) 해변취/큰각시취(*Saussurea taquetii* H.Lév. & Vaniot) 참골무꽃(*Scutellaria taquetii* Vaniot & H. Lév.) 산미역취(*Solidago virgaurea* L. var. *taquetii* H.Lév.) 사데풀(*Sonchus taquetii* H.Lév.) 잠자리피(*Trisetum taquetii* Hack.) 모새나무(*Vaccinium taquetii* H.Lév.) 새완두(*Vicia taquetii* H.Lév.) 한라부추(*Allium taquetii* H.Lév. & Vaniot)

- ▶ .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컬렉터 타케 식물 14
- ▶ 중, 타케티 2종) <http://www.type.kahaku.go.jp/TypeDB/> 타케티 두메담배풀/좁담배풀(*Carpesium taquetii* H.Lév.) 사데풀(*Sonchus taquetii* H.Lév.)

- ▶ .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컬렉터 타케 식물 331종 타케티 10종)
<https://www.mnhn.fr/>
- ▶ 타케티 왕밀사초(*Carex taquetii* H.Lév.) 한라돌창포(*Tofieldia taquetii* H.Lév. & Vaniot)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Diplazium taquetii* C.Chr.)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죽대(*Polygonatum taquetii* H.Lév. & Vaniot) 한라송이풀(*Pedicularis taquetii* P.C.Tsoong) 참지네고사리(*Dryopteris taquetii* Christ) 한라비비추(*Hosta taquetii* (Levl.) M.G.Chung & J.W.Kim) 십자고사리(*Polystichum taquetii*) 겨이삭여뀌(*Polygonum taquetii* H.Lév.)

- ▶ . 중국 CVH 식물표본관(컬렉터 타케 식물 9종, 타케티 2종) <http://www.cvh.ac.cn/en/>
- ▶ 타케티 제주암고사리/탐라암고사리(*Diplazium taquetii* C.Chr.) 한라송이풀(*Pedicularis taquetii* P.C.Tsoong)

- ▶ . 스위스 제네바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31종, 타케티 3종) <http://www.ville-ge.ch/musinfo/>
- ▶ 타케티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사마귀풀(*Aneilema taquetii* H. Lévl.) 궁궁이(*Peucedanum taquetii* H. Wolff)

- ▶ .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컬렉터 타케 식물 13종, 타케티 1종)
<https://collections.nmnh.si.edu/search/>
- ▶ 타케티 잠자리피(*Trisetum taquetii* Hack.)

- ▶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달렘식물원(컬렉터 타케 식물 4종, 타케티 1종)
<http://ww2.bgbm.org/herbarium/>
- ▶ 타케티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 ▶ . 네덜란드 레이던자연사박물관 생물다양성센터(타케티 1종)
<https://plants.jstor.org/>
 - ▶ 타케티 녹나무(*Cinnamomum taquetii* Lév.)
 - ▶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타케티 1종)
 - ▶ 타케티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Diplazium taquetii* C. Chr.)
 - ▶ . 스웨덴 자연사박물관 식물부(타케티 1종)
 - ▶ 타케티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Diplazium taquetii* C. Chr.)
 - ▶ .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 룬델식물표본관(타케티 1종)
 - ▶ 타케티 큰개수염(*Eriocaulon taquetii* Lecomte)
 - ▶ . 캐나다 농업식품부(타케티 2종)
 - ▶ 타케티 거이삭여뀌(*Polygonum taquetii* Lév.) 평의다리/한라평의다리(*Thalictrum taquetii* Lév.)
 - ▶ . 미국 하버드대학교 그레이식물표본관(타케티 1종)
 - ▶ 타케티 평의다리/한라평의다리(*Thalictrum taquetii* H. Léveillé)
 - ▶ .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박물관(타케티 1종)
- 타케티 잠자리피(*Thalictrum taquetii* Hack.) 에밀 타케의 선물, 250-6

- ▶ 정홍규 신부는 타케 신부의 식물 동반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진술한다:
- ▶ “타케 신부의 식물학적 공적을 기려 그에게 헌명된 식물은 모두 125종이다. 이 125종의 학명에는 ‘타케티taquetii’가 들어가고, 우리는 이 식물들을 일러 타케티라고도 한다.” 정신부는 “타케티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책, <에밀 타케의 선물>, 256-69에서 “125종의 타케티 중 25종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가운데 갯취를 비롯한 섬잔대, 좀갈매나무 등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라고 말한다.

1. 에밀 타케 신부의 파견 이유: 선교 생태적 배경
2. 미션과 존재
3. 생태적 감수성과 선교의 원천으로서 교회관과 교회관의 원천인 세계 인식
4. 사회 생태와 미션
5. 에밀 타케 신부가 증거한 생태적 존재장의 복음적 동반과 화해
6. 오늘 우리 교회의 소명과 기도

생태적 감수성과
선교의 원천으로서 교회관과
교회관의 원천인 세계 인식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로부터
<복음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는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 동반에 관한
한 성찰

- ▶ 전능하신 하느님,
- ▶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 ▶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 ...
- ▶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 ▶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 ▶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 ▶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 ▶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 ▶ 찬미받으소서, 246항: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 ▶ 아버지,
- ▶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 ▶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 ▶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 ▶ 아버지의 현존과 은유로 충만하나이다.
- ▶ 찬미받으소서!

- ▶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 ▶ 주님께께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
- ▶ 주님께께서는 ...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 ▶ 성령님, 성령님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 ▶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 ▶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246항: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 ▶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을
더 깊이 느끼고
- ▶ 외부의 피조물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면
- ▶ 관상이
더 완전해집니다.”

찬미받으소서 233항

사도신경

-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 ▶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 ▶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 ▶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 ▶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 ▶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 성령을 믿으며
 - ▶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 ▶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 ▶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 아멘.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 ▶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 ▶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 ▶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관

- ▶ 구원의 방주
- ▶ 가르치는 교회
- ▶ 복음화와 신자들
 - 질적 접근-교리 교육 철저
 - 선교사들의 신자 판단 기준/ 충실도 따라 (김원영 신부)
 - 정의 실천 여부
 - 이단 행위 여부

교회관의 원천: 이어진 자기 인식

- ▶ 이어진 자기

하느님

세계-지구-우주

인간 사회

국가 관계

자기

빛과 진리

- ▶ 빛과 문
- ▶ 진리와 문
- ▶ 문 열림과 닫힘 식별 기준-하느님 관상과 사람들 관상
- ▶ 현장 아는 신학과 영성과 사목
- ▶ 현장에 닫힌 신학과 영성과 사목
- ▶ 제사에 대한 태도
- ▶ 무당-굿-당목 제사에 대한 태도 우상숭배

꿀

밟으면
밟히네

- ▶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 ▶ 다 가르쳐 주었다.
- ▶ 주님,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당신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 ▶ 내가 창조한 것들을 보아라.
- ▶ 내가 창조한 것들에 나의 길이 있다.
- ▶ 흙-풀들-나무들-벌레들-동물들: 제 종류대로 제 꿀대로
- ▶ 밥
- ▶ 집
- ▶ 물
- ▶ 소리
- ▶ 빛
- ▶ 바람
- ▶ 바람과 흙과 존재

- ▶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느님을 계시한다
- ▶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 ▶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
- ▶ 빛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 ▶ 빛에 대한 이해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매개한다
- ▶ 빛에 대한 연구 영역 물리학-입자 물리학
- ▶ 신학과
영성과
사목하고 입자 물리학하고
나하고
교회하고 입자 물리학하고

- ▶ 성당 건물과 영성
- ▶ 원자와 영성
- ▶ 전자와 영성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46항: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중에서
- ▶ 빛의 이중성과
- ▶ 영성 삶이와 사목 현상

- ▶ 입자형 사목
- ▶ 제사와 가톨릭 교회-천주교
정약용의 증거
- ▶ 입자형 사목
탐관오리들에 대한 교회의 응답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이전과 이후
- ▶ 무당 굿 당목에 대한 교회의 응답
1886년 이전과 이후
- ▶ 라크루츠 신부와 에밀 타케 신부의 응답

사회 생태와 미션

▶ 1. 수단-대박-양박-함대

대박(大舶)-양박(洋舶)-함대 선교 선택한 선교사들
“용불(用佛)”-“용함대(用艦隊)”-“용포(用砲)” 선교 선택한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 교우들/ 이를 아파하는 이들은?

- ▶ “나쁜 짓을 하려고 천주교 신자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사기꾼,” “건달들,” “신자 자칭 불한당들”이라고 부른 이들을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곧 “용교인”들이라고 비판한다.
- ▶ 선교사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전교관의 변형태라는 것을 몰랐다.
- ▶ 뮌헨 주교가 당국자와 준비한 교민조약 1899년 3월 9일
- ▶ 타케 신부가 비라실 회장들에게 주는 글/ 1899년 7월 이후

- ▶ 히스higgs와 물체와 질량

- ▶ 민중과 옷과 예비자
민중과 수단과 예비자
민중과 상복과 예비자

- ▶ 그리스도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게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충실한 옷은?

60-70년대 노동자복 농민복/ 로만칼라와 수도자 복장
80년대 요한 바오로 2세의 하얀 교황복
2018년 오늘은?

▶ 2. 무당 굿 당집 당목과 자연 생태 사회 생태 인간 생태

서양 선교사들과 그리스도교의 자연 인식

이성 중심 신학과 영성과 사목에서 자연 감수성

- ▶ 타케 신부의 식물 채집과 왕벚나무 온주밀감
당목과 왕벚나무

- ▶ 세상은 모든 것을 온전히 채워 주신 하느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따라서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015, 233항)

- ▶ 외부의 피조물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면
관상이 더 완전해집니다.
(찬미받으소서 233항)

▶ 땅-흙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찬미받으소서 1항)

▶ 흙-물-바람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2)

▶ 물

세례 때에 어린이 몸에 붓는 물은 새 생명의 표징입니다. (235)

▶ 빛

▶ 바람-공기

▶ 무당

▶ 당집

▶ 당목

▶ 그리고 생명과 존재



불카분낭 (불타버린 나무)

<http://www.43archives.or.kr/mobile/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43>

에밀 타케 신부가 증거한 생태적 존재장의 복음적 동반과 화해

에밀 타케 신부의 마음과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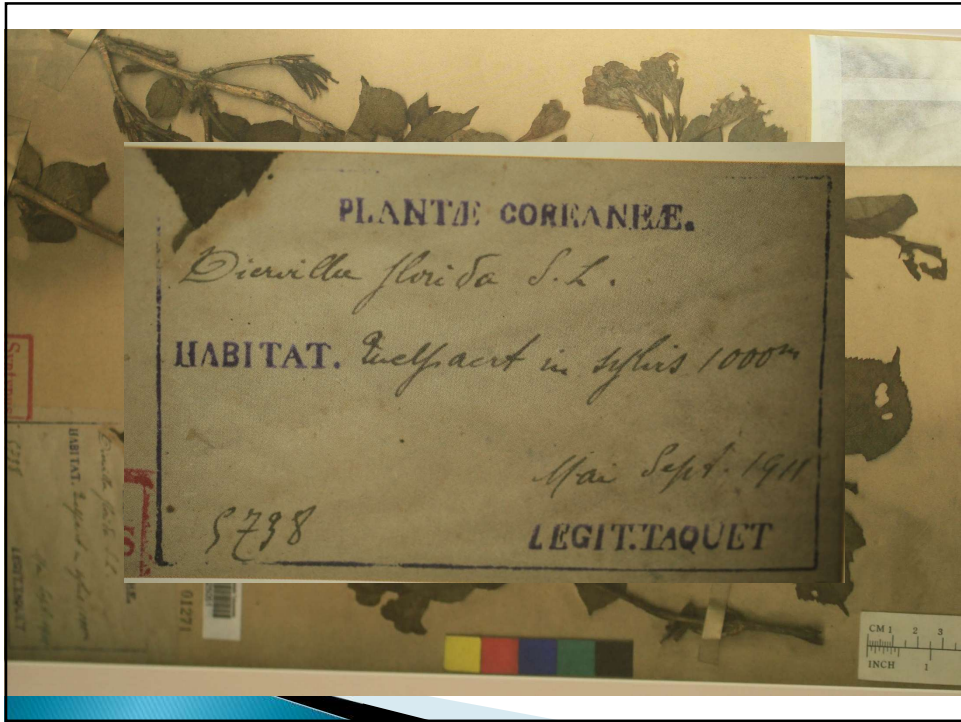
- ▶ 타케 신부가 1904년 7월 22일 워털 주교에게 쓴 편지: 워털 문서 번호 1904-119
- ▶ 재정 지출과 박해 연결 설명 과정에서
- ▶ 신부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박해자들과 학살자들은 그들의 공훈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들에게 목졸려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불행한 자들에게 사람들은 뭔가를 무엇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동정이나마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싸다! 이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추도사였습니다.

- ▶ 타케 신부가 워털 주교에게 쓴 편지: 워털 문서 번호 1904-151
- ▶ 짓값 대신
- ▶ 죄인들을 대신해 짓값을 치르는 것은 무고한 신자들입니다/ 백성 관상

- ▶ 무지한 제사 금지가 무죄한 조선인들이 무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였다

Allium taquetii H.Lév. & Vaniot 한라부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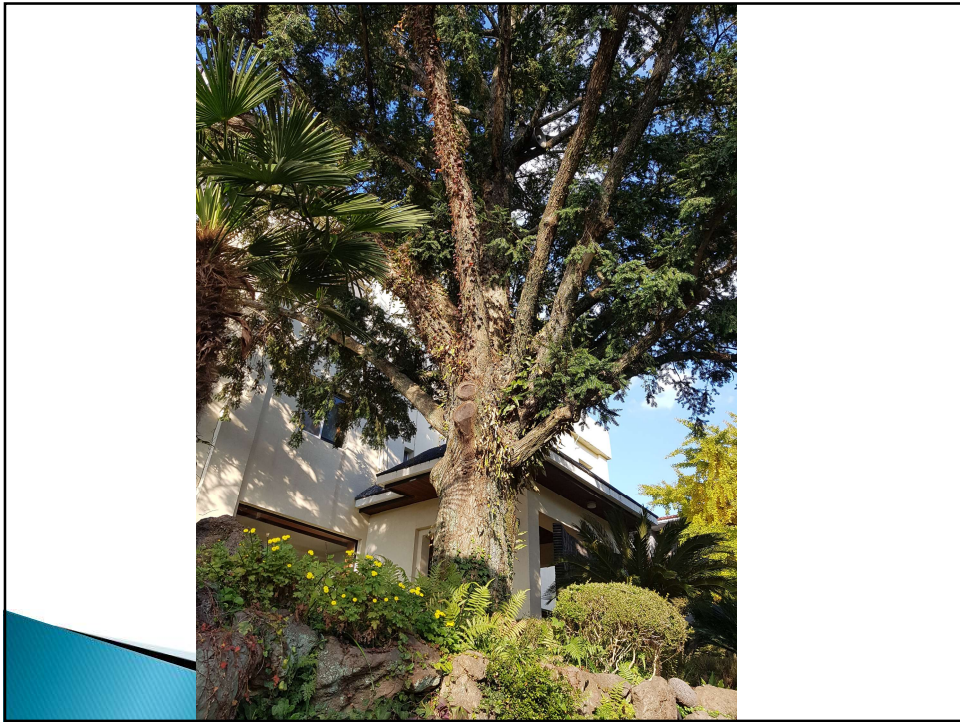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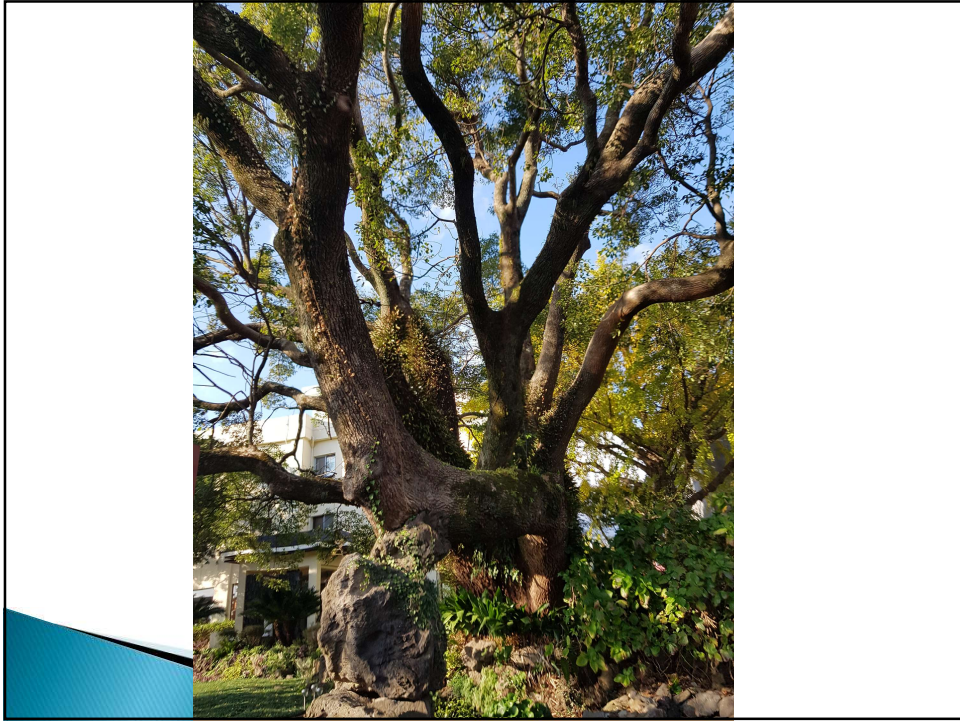


타케 신부의 식물 채집과 새로운 대면

- ▶ 하느님 찬양-생물 다양성
“제 종류대로”
- ▶ 제주민들의 식물들
 - 관심
 - 존중
 - 소통
 - 공유
 - 지구화
- ▶ 제주민들 사랑하는 데 필요한 재정
- ▶ 당목들을 베어내면서 준 상처들에 대한 말없는 참회 여정

봉세관과 사슴들의 세페와 경제 살림/ 온주밀감 선물





오늘 우리 교회의 소명과 기도

- ▶ 신학과 영성과 사목의 패러다임 형성
- ▶ 내세 신앙: 죄-구원 틀 하늘 중심 땅 소홀
- ▶ 영혼 구원 중심: 개인 영혼
- ▶ 성직자 중심
- ▶ 성사 중심: 향벽설위와 향아설위
- ▶ 성당 안 활동 중심: 개인 신심 실천
- ▶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다
- ▶ 가난의 원인,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보려는 복음적 노력은 신앙을 앞세워서 가로막기도 한다

- ▶ **현대 복음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로운 복음화**
- ▶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까?

- ▶ 문창우 주교의 “1901년 제주 신축 교안의 선교사적 고찰”
 새로운 복음화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토착화
 원인 1: 사제나 교인의 월권 2: 교회의 의식이나 교리의 대립
 육화: 들음과 존재 전달
- ▶ “기억의 대립과 토착 문화 인식”
 김원영 신부의 수신영약에 대한 복음적 응답

- ▶ 신학하기의 자리(locus theologicus)
 영성과 사목의 자리에 대한 존중과 귀기울임

온주밀감 나무를 키우려면,
 왕벚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새로운 복음화란 “spirit-filled evangelization”(복음의 기쁨, 261)이다.
- ▶ “영으로-가득 찬 복음화” - “열정, 기쁨, 관대함, 담대한 용기, 한없는 사랑과 매력이 넘치는 삶”으로 충만한 “복음화”다(261). “영으로 가득 찬 복음화”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음화”로서, 영으로 충만한 기도와 일로 나타난다(262).

- ▶ 이 복음화의 첫 번째 동인
- ▶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갖는 인격적 만남 personal encounter with the saving love of Jesus”(264-267).
- ▶ 그분의 눈길에 매혹될 때, 우리의 눈길, 우리의 존재가 복음화되고,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할 가능성이 커진다.

- ▶ 둘째 동인
- ▶ “한 백성이 되는 영적 기쁨 the spiritual savour of being a people”(268-274).
- ▶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습니다”(272). 하느님의 백성,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가 될 때, 영으로 충만한 새로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우리의 이웃의 규모는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찬미받으소서>에서 사용한 언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우주적 가족”(찬미받으소서 89), “우주적 친교”(92), “우주적 형제애”(228)를 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 154항에서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 요청했던 말씀 관상과 사람들 관상의 통합을 사목적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이웃의 지평을 온 창조물을 포용하는 형태로 재구조화한다. 그리하여 하느님 관상과 사람들 관상에 더하여 하느님의 온 창조계 관상을 통합한 형태로 관상을 철저히 이어 놓는다.

- ▶ 셋째 동인
- ▶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신비로운 활동 the mysterious working of the risen Christ and his Spirit”
- ▶ 무기력 상태는 영으로 충만한 복음화를 가로막는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어떤 곳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 ▶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곳에 이 새로운 세상의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은 잘려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역사 속에 면면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78).

- ▶ 넷째 동인
- ▶ “전구가 지닌 선교의 힘the missionary power of intercessory prayer”
- ▶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를 받아들여서 다른 존재들-사람들과 생명들과 사물들-의 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복음의 기쁨 281 참조).
- ▶ 이것은 두 번째 동인인 하느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과 이어져 있다. 교황은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지역 신앙 공동체의 신자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며 그들을 동반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형제들을 위한 이같은 기도가 “참다운 관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리어 하느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깊은 관상은 언제나 “다른 이를 위한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281).
- ▶ 여기서 교황이 표현한 “다른 이”를 <찬미받으소서>의 지평에서는 하느님의 지수광풍(地水光風)을 포함해서 하느님의 창조계를 구성하는 “다른 온 존재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새로운 복음화는 예수님을 만난 존재로서(첫째 동인)
- ▶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예수님과 성령의 작용에 따라서(셋째 동인)
- ▶ 그분의 백성과 하나 되는 가운데(둘째 동인)
- ▶ 하느님 관상과 다른 존재들 관상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넷째 동인)
- ▶ 구체적인 투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 ▶ 여기에서 관건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 관상과 사람들 관상과 창조물 관상을 우리의 일상에 육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 동반 의의: 사랑과 참회와 증거

- ▶ 떠난 사람
- ▶ 갈등과 대립의 한복판으로 들어선 순명자
- ▶ 떠난 지역 사람들 한가운데 묻힌 선교사
- ▶ 하느님의 창조와 충만에 닿은 사람
- ▶ 하느님의 창조와 충만을 증거한 선교사
- ▶ 하느님의 살림 안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

왕벚나무와 구상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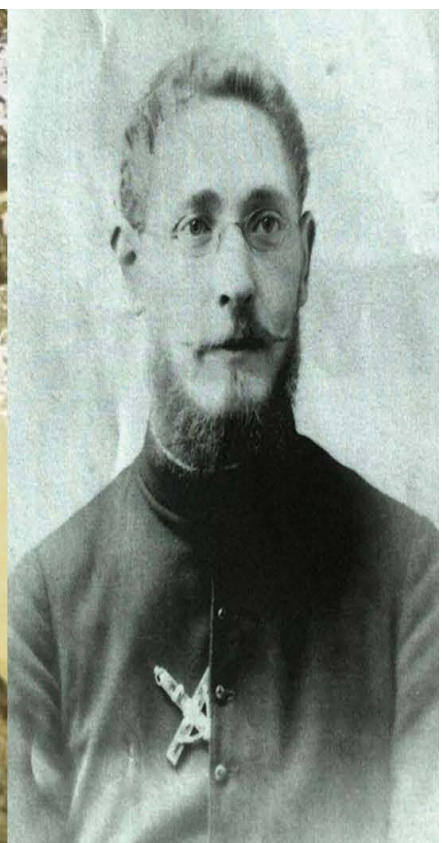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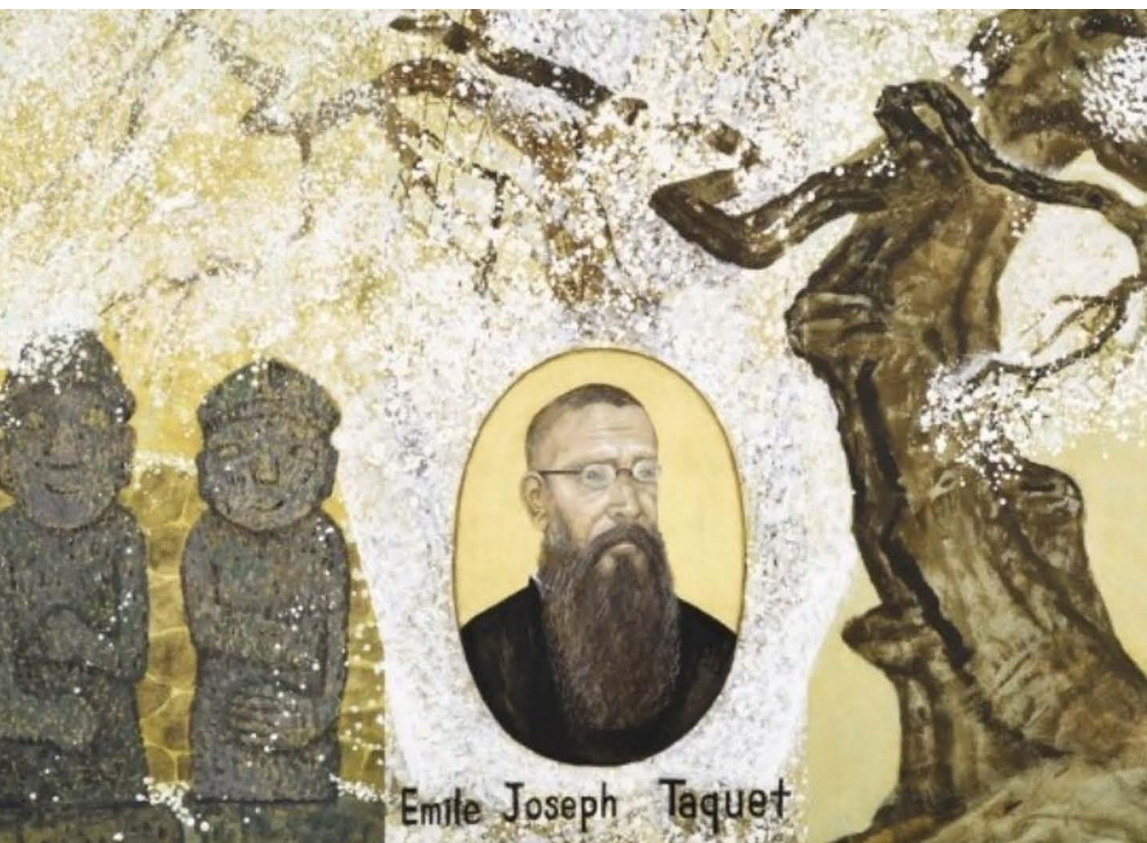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 기념 역사 학술 포럼

[제 2 강 연]

에밀 타케의 선교활동에 대한 영성적 고찰

문창우 비오오 주교(천주교제주교구 부교구장장)



에밀 타케의 선교활동에 대한 영성적 고찰

문창우 주교

1. 조선 후기(한말) 천주교의 상황

세계사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단지 그 사건만을 바라보아서는 그 사건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천주교 상황도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세계의 흐름은 서구 열강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패권 다툼으로 인해 식민지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무력에 의한 확장이나, 통상을 빌미로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와 사절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에서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16세기 이후 서양 제국에 의한 지리적 발견과 함께 가톨릭의 세계포교사업은 본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 속에 본격화되었다. 이는 정복과 개종이라는 목적 아래 중상주의적 절대주의 국가와 가톨릭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런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는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성주의.계몽주의의 등장으로 교회 영향력이 쇠퇴하면서도 절대국가 안에서 해외 포교 사업은 국가에 의해 더욱 권장되고, 적극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¹⁾

동아시아에 대한 전교사업은 16세기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전교 사업은 보유론적 적응주의(補遺論的 適應主義)를 채택한 예수회가 주로 담당하였고, 그 지역의 선교보호권(padronados)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여 동양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에 있었다.

예수회는 포교지의 전통.종교.문화등의 기존의 가치 체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전교 사업을 추진하여 큰 갈등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²⁾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예수회의 보유론적 적응주의가 비판을 받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차단되는 속에서 예수회는 해산되었고, 이에 동아시아의 전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예수회의 역할을 파리 외방 전교회가 담당하게 되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산업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강력해진 프랑스가 그곳의 선교보호권을 넘겨받는다. 이와 함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에 이어 낭만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면서 국가교회주의가 강화되었다.

1) 강창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연구』 1, 제주도사연구회, 1991, 131 ~ 133쪽

2) A 프란젠, 『교회사』, 분도출판사, 1990, 366 ~ 372쪽

19세기는 포교의 전성기로서 교회는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힘에, 국가는 식민지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시 빈발했던 교회측과 정착민의 갈등과 대립구조의 양상 안에서 침략의 발판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이런 19세기의 절대주의 국가의 힘의 원리는 당시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지니고 있던 중국에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1842년 난징조약으로 마무리된 아편전쟁은 청국(淸國)정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자만심을 무력으로 꺾인 더할 수 없이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면 청국의 개국과 더불어 유럽과의 교섭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영향은 나아가서 조선과 일본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편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1841년 프랑스는 중국에 군함 2척을 파견하고 뒤늦게나마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권을 찾아보려고 조선원정을 계획하게 되었다.³⁾ 이를 위해 세실 함장은 마카오에 닻을 내리고 파리 외방 전교회 경리부를 찾아가 그곳에 유학중이던 조선인 신학생을 통역으로 동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경리부에서 그의 청을 즉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대건 신학생은 군함 에리곤 호에 올라 세실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난징조약으로 아편전쟁이 영국에 유리하게 되자 중국에 계속 주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조선원정은 중단되고 말았다.⁴⁾

그러나 세실은 1846년 조선원정을 다시 결심하였고, 그것은 무엇보다 1839년의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처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처럼 조선 정부로부터 문호의 개방과 종교의 자유를 함께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 번번히 실패하였고 오히려 조선에 악영향을 끼쳐 조선에 남아 있는 선교사와 천주교인을 살상하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프랑스 정부는 군사적 보복만으로 조선을 개국시킬 수 없음을 알고 앞으로의 조선원정은 종전과 같이 선교사 학살에 대한 보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통상(通商)이란 보다 보편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⁵⁾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점차 통상의 요구라는 보편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조선은 비로소 1882년부터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을 선두로 하여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는데, 프랑스와는 제일 늦은 1886년에 가서야 조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다른 새 열강은 오직 통상만을 목적으로 협상하였으나, 프랑스는 통상과 더불어 선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이하 한불조약)’ 이후 선교사의 조건은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천주교인의 조건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 천주교는 여전히

3) 최석우, 『한국 교회사 연구』Ⅱ,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324~325쪽.

4)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 下, 탐구당, 1970, 31~32쪽.

5) 이원순, 위의 책, 35~38쪽.

금지된 종교로 인식되었고, 정착지와 그 밖의 활동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건물도 세울 수 없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이미 각 지방에 정착하여 본당을 건설하고 본당에 필요한 건물을 세워가고 있었기에 여전히 정부와 천주교의 갈등, 천주교인과 민중의 대립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런 사건들은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외교문제, 즉 소위 ‘교안(教案)’으로 확대되었다.⁶⁾ 이후 조선 천주교회에 포교를 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은 프랑스의 파리 외방 전교회였다. 이들의 전교 방식이나 사상은 조선 후기 천주교의 성격 안에 드러나게 된다. 우선 파리 외방 전교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중세적 봉건 질서가 해제되면서 프랑스는 강력한 중상주의적 절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에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프랑스 성직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17.18세기의 갈리아니즘⁷⁾과 안세니즘⁸⁾이 그것이었다.⁹⁾

이런 두 가지 경향은 프랑스 성직자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비유럽지역의 전교로 연결되면서 대상 지역의 전통.종교.의례.윤리 등의 기존 가치체계 및 사회구조.체제는 파괴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식민주의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천주교의 사상적 경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¹⁰⁾ 이런 사상적 기반을 지니고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한불조약 이후 더욱 자유로운 조건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886년 조약 체결 이후 천주교회는 선교의 자유가 인정되자 교세가 급속도로 신장했는데 특히 가장 먼저 교세가 성장하였던 곳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지역적 조건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즉, 모든 외교공관이 서울에 자리잡고 있었고,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선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 따라서 피신하여 있던 타지역의 교인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여 왔으며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였던 지역 교인들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났다.¹¹⁾

6) 효성가톨릭대학교수 김길수씨의 말을 빌리면 “교안은 교회측과 민인들(민중)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결국 이런 양상에서 교인은 문제 발생시 선교사에게 의지하고 선교사는 프랑스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민인은 문제 발생시 지방관에게 호소하고 지방관은 정부에 알린다. 결국 교안은 외교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7) 갈리아니즘은 국가교회주의로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프랑스 교회’를 위해 교황의 수위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교회가 국가에의 예속이 더욱 심화됨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은 절대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그리고 제국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파리 외방 전교회가 교황청의 포교성 소속이면서도 프랑스가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전교사업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루어져, 곧 국가간 문제로의 발발 가능성이 스며들게 되었다.

8) 안세니즘은 18세기 이후 교회를 휩쓸었던 사상으로 이는 특수한 신심과 엄격성을 가지고 일면적으로 과장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원리설과 은총설을 가톨릭 신학과 신심에 도입하였다. 이 사상은 보수주의로서 내세 중심적이며, 독선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문화적으로는 유럽문화 절대 우월주의요,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9) 노길명, 「가톨릭과 한국 사회 발전」, 『한국사회와 가톨릭시즘』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3.

10) 노길명, 앞의 책, 203~204쪽.

11) 명동천주교회, 「1886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I, 1984, 47쪽.

1890년 이후로는 각 지역별로 선교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예전과는 달리 한불조약에 규정된 치외법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전교를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교세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한불조약에서의 치외법권 내용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들은 호조(護照)¹²⁾를 가지고 조선의 각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했고, 선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아내게 되었다.

또한 호조 없이도 국내 여행이 가능하며 프랑스인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조선 관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영사관에 인도되어 프랑스법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이젠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관들에 의하여 '양대인(洋大人)'이라 불리는 특권적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개종자들의 증가로 교인촌의 인구가 증가하자, 넓은 계곡이나 평야로 내려와서 논농사를 짓는 교인들이 늘어났으며, 각 지역별 수요물량이 읍내나 개항장 중심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교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다양해졌다.¹³⁾ 우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유력 양반층의 입교가 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양반층의 입교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입교가 교세 확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입교자 계층은 향리층과 하급 관속들이었는데 전라도.제주도 등 여러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입교는 천주교회가 탄압을 받던 시기와는 달리 강력한 외세를 등에 업고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표면화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민중들은 다양한 입교 경험을 보였다. 그 입교 동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 의하여 입교하였던 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천주교의 교리에 이끌려서 입교하거나, 천주교의 의식과 기도의 효과에 영향을 받아서 입교하였다. 다음으로는 교회세력에 의지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한말의 전형적인 교민의 형태였다.

이런 입교 동기를 소위 양대인 자세(洋大人藉勢)라고 했는데 한불조약 체결 직후 향촌에서의 지방관이나 일반 민인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전처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배격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외국인 신부가 교민을 위협하는 향반이나 민인을 직접 불러서 경고하거나 형량을 가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넘어서서 감옥에 갇힌 신자를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은 이전과 달리 성직자 복장을 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교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임을 숨기지 않았다.¹⁴⁾

12)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 내지(內地)를 다니던 외국인에게 발행하여 주던 여행 증명서.

13) 명동천주교회, 위의 책, 53쪽.

14) 명동천주교회, 위의 책, 130쪽.

이처럼 신부들이 향촌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교인들은 이러한 힘에 의지하고자 더욱 양대인 자세(洋大人藉勢)¹⁵⁾ 풍조가 빈번하였고, 교회는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조선 후기 천주교는 강력한 사회세력을 갖추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라기보다 교회의 세력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이 많은 폐단을 일삼고 있어서 향촌 사회가 교회에 대해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또한 이런 현상은 국가권력의 약화와 지방 통치체계의 문란, 이에 따른 관리들의 폐단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2.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

제주도의 천주교 수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처음으로 유입되어서 수용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개 1899년에는 선교사들이 제주에 입도(入島)하여 전교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¹⁶⁾ 사실 제주도에서의 천주교 수용은 육지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닌 본도인 스스로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¹⁷⁾

그러나 뫼텔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도 드물게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¹⁸⁾ 즉 1866년 이전에 몇몇 신자들이 이섬에 살았다. 그러나 M.Peynet (뫼이네)신부가 1899년 5월 처음으로 이 섬에 왔을 때는 그들에 대한 흔적이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이런 기록들은 분명히 1866년 이전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최초의 천주교 전파의 기록은 김석익씨의 『증보탐라지』의 부기문전설조(附奇聞傳說條)에 나오는 것으로,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 천주교와 접촉한 사람을 김복수라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임진왜란(1592~1598)에 풍파를 만나 안남국에 표착하였다가, 그 곳에서 만나게 된 일본 사신을 따라, 일본의 오사까성으로 가서 구라파왕의 사신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것과 교리책 및 기도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에 다행히 배편을 얻어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²⁰⁾

15) 이런 바탕으로 입교한 이들의 모습의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을 신부의 대리인으로 칭하여 민인들로부터 금전을 수탈하거나 민인을 억압하는 형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신부에 의지하여 관이나 양반층의 수탈로부터 보호받고자 입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모습은 전국적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 황해도 지역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입교하여 오히려 교세에 의지하여 범죄를 일삼는 형태가 있었다. 특히 이런 형태는 동학 농민 운동이 진압된 후 농민군들이 동학운동을 계속 유지하고자 천주교에 들어오는 이들이 많았다.

16)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태화출판사, 1890, 22쪽.

17)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가톨릭출판사, 1962, 953쪽.

18)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146쪽.

19)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의 원인」,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9, 1980, 187쪽.

다음으로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상 유배지였다는 점에서 천주교와의 접촉이 1866년 이전에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즉, 제주도에는 조선시대 많은 학식을 가졌던 유배인들이 살았고 한편 『사학징의(邪學懲義)』의 기록에 의하면 천주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유배되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황사영의 부인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그녀의 묘가 지금도 제주도 모슬포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 유추해볼 때 황사영의 부인인 정난주는 천주교 관계의 박해로 이곳에 유배온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적어도 그 자신만으로도 신앙생활을 보존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²¹⁾

정난주는 1801년에 남편이 사형된 후 그의 모친은 거제도, 그 자신은 아들과 함께 목포를 거쳐 제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정난주는 정약현의 딸로서 혼인을 하여 천주교를 믿고 있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남편이 사형당하고 순교하자 그녀는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던 중 어린 아들은 추자도에 내려놓고 그녀 자신만 제주도에 도착했다. 100리 길을 걸어 대정군에 짐을 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유배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곳에서 정난주는 인품이 좋은 ‘서울할머니’로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정난주는 마을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적인 천주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지는 못했을 지언정, 그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천주교의 근본 의미와 뜻을 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본격적인 천주교 전파에 대한 내용은 CH.Dallet 교회사 속에서 조금은 찾을 수가 있다.

즉 1858년 8월 5일자 장Berneux주교의 파리 외방전교회에 보고한 서간의 기록을 보면,

김기량(펠릭스 베드로)라는 제주도민이 탄 배 한 척이 1856년 풍랑을 만나 중국의 광둥지방으로 표류하던 중, 같이 배를 탔던 5명의 친구를 잃고 다행히 영국배에 구조되었던 그는 홍콩에 있던 천주교 신부덕으로 넘겨져 병을 치료받고 있던 거기서 조선 신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의 가르침으로 영세하고 입교하였던 것이다. 그 후 펠릭스 베드로는 1858년 조선에 귀국하여 페롱 권신부와 최양업신부를 만나 교리책을 얻는 한편, 장주교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도민 20여 명과 그의 가족 40명을 개종시켰다는 기록이 있다.²³⁾

20) 이정훈, 「제주 신축 성교란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5, 1988, 264쪽.

21) 이정훈, 위의 책, 264쪽.

22)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전개 과정」, 앞의 책, 147쪽.

23)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태화출판사, 1980, 25~26쪽.

뫼텔 주교의 보고서에 말하는 “1866년 이전, 섬에 몇몇 크리스찬들이 희소하게 살았으나, 선교사들이 이 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취나 기념될 만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1866년 이전의 교인의 흔적이란 것이 아마 김기량(펠릭스 베드로)²⁴⁾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⁵⁾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때 이미 철종시대에 우연찮게 이루어졌지만 제주도에는 교인들이 있었으며 적어도 20여명 이상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병인박해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어갔거나 선교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천주교 전교는 1866년 프랑스와의 한·불조약이 체결된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어 뫼텔 주교시대에 이르러 18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1898년경 제주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양베드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육지부에서 세례를 받고, 제주에 돌아와 신아오스딩과 신바오로 형제와 함께 전교하였다. 이에 양베드로는 제주도 안에서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이 되었다. 즉, 최선홍 신부의 1935년 9월, 10월호의 『가톨릭 연구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도민은 일반적으로 순박하여 공검(恭儉)해야 교사(敎社)의 예로 자기 정신과 양심에 지배하더니 고려 충렬왕 2년에 불교와 잡신교가 침입하여 도민성을 침략케 하였고, 이조 문치(文治)의 화(化)가 선정됨에 따라 유교가 대흥 하얏다가 그 말년에 윤리가 문란하던 차 광무 3년 강생 1899년에 이쪽 나라 외로운 섬에 쓸쓸한 겨울 바람이 끝을 맺고 본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양베드로가 육지에 머무를 때 영세 입교하여 열심 수계하다가 고행에 돌아와 신 아오시등, 신바오로 형제와 대병면 보성리에 사는 김생원과 강도비아에게 전교하여 모든 가정이 열심 수계하나 목자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민주교 각하께서 「가오로 배신부」와 「아오스딩 김신부」를 제주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²⁶⁾

이로써 제주에도 선교사들에 의한 본격적인 전교가 시작되나, 처음에는 전교의 성과가 그리 밝지 못했다. 이는 당시 제주라는 섬의 지역적 특색과 그에 따른 민중들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난폭하고 좀 야만적이고 외국인을 대단히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미신적이어서 처음에는 전교되지 않았고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드물다보니 이것 역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거리로 나타났다.²⁷⁾ 그래서 일년이 지난 1900년에도 겨우 19명의 영세자를

24) 1866년 병인박해 때, 경상남도 통영에서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흘려 순교하였다.

25) 김옥희, 위의 책, 5쪽.

26) 최선홍,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본당연혁」, 『가톨릭연구』, 1935.9.10월 합병호, 177~178쪽.

27) 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본당의 초창기」, 『교회와 역사』합본 1집, 서울, 1983.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1년 사이에 개종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신축교안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에는 영세자가 242명, 그리고 예비자도 6~7백여명으로 급증하였다.²⁸⁾

그러나 선교사로 처음 내도한 M.Peynet(페네) 신부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고, 그 후임으로 L.Marcel Lacroust(구마슬) 신부가 부임하였고 개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1901년 5월 J.G.Mousset(문제만) 신부가 파견되었다. 구신부는 제주 성내를 사목하고, 김신부와 문신부는 정의군 서흥리의 한논성당을 담당하였다.²⁹⁾

이렇게 천주교의 교세가 갑자기 확대된 것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심과 반항심이 누적되어 있었고,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종 광무 초에 천주교가 처음 포교되기 시작하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든 교우로 대해주는 천주교에 감격하여 입교하거나 또한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여 입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⁰⁾

여기에 당시 제주목사와 군수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사람들과 1900년경부터 봉세관을 보내어 정부의 부족한 왕실재정을 메꾸기 위해 각종 잡세를 징수하는 등의 정치의 부패와 문란도 교세 확장의 이유였을 것이다. 즉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민생고에서부터 탈출구를 찾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제주에 유배와 있던 학식있는 자들이 천주교에 입교한 사실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중앙 정부에서 쫓겨난 양반들의 집합소로서 많은 울분과 반감을 갖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사의 허무함과 인생관에 대한 사색에서 입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정계 진출을 위해서 프랑스 신부의 힘을 빌릴 목적으로 천주교를 가까이 대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시의 제주에서는 총인구 약 4만명중, 당시 천주교가 1천명 가까운 교인을 확보했으니, 북쪽의 제주읍과 남쪽의 한논에는 성당을, 각 촌에는 간단히 공소가 설치되어 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³¹⁾

3. 에밀 타케의 생애와 선교활동³²⁾

28) 강창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 연구』 1, 제주도사연구회, 1991, 94쪽.

29) 유흥렬, 「고종치하의 서학수난의 연구」, 앞의 책, 375~376쪽.

30) 김태능, 「성교난」, 『제주신문』, 1962, 요약.

31) 유흥렬, 앞의 책, 376쪽.

32) 정홍규, <에밀 타케의 선물>, 다비치, 2019, 부록편 p 246-249 참조

에밀 타케 신부는 1873년 10월 30일 프랑스 북부 캉브레 교구에 속한 노르 주 케누아의 에크에서 이폴리트 타케와 안나 위바이유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2년 9월 23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19세)하여 1897년 9월 27일까지 수학하였다. 타케 신부(25세)가 리굴로 A. Rigoulor신부와 함께 서울에 도착한 것은 1898년 1월 5일의 일이다. 24세의 혈기 왕성한 프랑스인 신부가 사가미마루호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지 70여 일 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조선(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1897년 9월 27일 사제 서품을 받은 에밀 타케 신부(24세)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었다. 1658년에 창설된 파리외방전교회의 특징은 선교사들이 일정 지역에 종신토록 머물며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에밀 타케 신부 또한 조선 근대사의 격변기를 관통하며 이 땅을 제2의 조국으로 삼았다. 장호원 성당(현 감곡매괴 성모순례지 성당)에서 초대 주임신부인 임 가밀로 신부님으로부터 조선말을 배우게 됩니다.

4월 부산본당(현 범일 성당) 3대 주임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낙동강 서쪽과 경상남도 남쪽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898년 5월 1일에서 1899년 6월 2일까지 경상남도 부산부, 동래군, 밀양군과 김해군에서 전교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1899년(26세) 1899년 6월 3일에서 1900년 5월 2일까지 진주와 거제도에서 선교, 6월 29일에 진주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 1900년(27세) 5월 3일에서 1902년 7월 3일까지 에 마산에서 선교하였습니다. 1901년(28세) 6월 29일에 마산포로 이전하여 마산본당(현 완월동 성당)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때 동래, 밀양, 김해, 진주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1902년(29세) 4월 20일 제주도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서귀포 한논본당(현 서귀포 성당) 3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³³⁾ 당시 1902년 4월 20일에서 1915년 6월 6일까지 서귀포 홍로에서 선교하였습니다. 본당신부로 재직하는 초기에 1902년 6월 17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한논본당을 홍로 성당(현 서귀포시 서흥동 면형의 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1906년(33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주도를 방문한 포리신부(59세)와 함께 첫 번째 식물채집을 나섭니다.(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1,500미터 지대까지) 한라산찌귀, 구슬꽃 나무, 산매자 채집을 하였습니다. 1907년(34세) 5월에서 10월 사이에 타케신부는 포리신부와 함께 두 번째 식물채집을 합니다.(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정상까

33) 부임날짜는 <뫼텔 주교일기 3>에서 따온 것으로 <제주 천주교 100년사>는 같은 달 30일 도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 구상나무, 향유, 화살나무등 채집합니다. 5월 17일, 19일에 한라산 1,500미터지대 까지 채집하였고 해발 1, 400미터에서 구상나무(쿠살낭)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6월 에도 홍로 부근에 채집하였고 7월에 백록담까지 조사합니다.

8월 영실을 거쳐 한라산 정상까지 조사하며 타케신부는 자신의 이름이 종소명으로 거 이삭여귀를 (*Persicaria taquetii*(H.Lev.)Koidz)채집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두차례 한라산 기슭에서 정상까지 조사합니다. 한라개승마, 두메대극, 왕모람 등 채집을 하여 우리나라 특산종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 12일에 포리신부와 함께 제주도로 온 워털 주교를 만났습니다.

1908년(35세) 2월에서 10월 사이 그는 처음으로 단독 식물 채집을 합니다. 왕벚나무 표본4638, 특산식물 가시복분자 등 채집합니다. 2월 홍로부근과 바닷가에서 채집하기도 합니다. 4월 두 차례 채집(8월 홍로일대 14일 한라산 600미터 지점) 14일 제주 벚 나무(왕벚나무 표본 4638 채집하였는데 (현재 교토대학교 식물표본실에 표본 보존),

한라산 남측 600미터 지점 관음사 부근에서 발견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해집니다. 5월 네차례 채집(5일, 8일, 10일, 12일) 12일에 우리나라 특산 식물가시복분자 등 채집합니다. 6월 두차례 채집(6월 한라산 1,000미터 지대까지 조사하고 8일에 경작지 근처에서 채집활동을 합니다.

8월 일곱차례 채집(12일과 13일 한라산 정상까지, 17일 한라산 1,600미터 지대까지 20일, 22일, 25일 새섬, 28일) 13일 두잎감자난초 채집합니다.(도쿄대학교 소장)

9월 열두차례 채집(2일과 4일 한라산 정상까지) 7일(영실부근), 10일, 14일, 17일(영 실부근), 18일(영실부근), 19일(정상까지) 22일(영실까지) 23일, 25일, 27일(영실까지) 10월 다섯차례 채집(2일, 6일, 20일, 25일, 30일(중문면 도순면 근처의 녹나무 채집, 산방산에서 채집) 25일 구산에서 애기나비나물 채집

1909년(36세) 5-10월 제주도 밖에서의 첫 번째 식물채집(목포, 인천) 및 제주도 안에서 채집(한라산 정상까지), 능수버들, 산버들 등 채집. 5월 제주도 외지역 채집, 목 포에서 큰 구슬봉이, 인천에서 특산종인 능수버들 채집. 6월 한라산 정상까지 두차례 등반, 1200미터까지 우리나라의 특산종 제주 산버들 채집. 8월 한라산 1,500미터 지 대에서 특산식물인 떡버들 채집. 10월 한라산에서 돌의 채집

1910년(37세) 4월에서 10월 후박나무, 아그배나무, 쯤갈매나무등 채집. 7월은 채집품 가장 많은 달로 다섯 차례 채집(1일, 2일, 4일, 6일, 15일)

1911년(38세) 3월에서 12월 5월 참나무류 채집, 검은 딸기 채집(도쿄대 소장) 6월과 8월 백록담까지 올라 특산종 한라 장구체와 한란 송이풀, 섬잔대 등을 발견. 섬잔대는 발견자 타케신부의 이름으로 현명됨. 이밖에 왕씀배, 졸참나무, 산철쭉, 진달래, 추분취 등채집. 12월 왕모람 채집. 온주 밀감을 제주에 최초로 도입함. 포리 신부로부터 감귤 묘목14그루 받아서 제주도에 심음.

1912년(39세) 4-6월 4월에 14-16일 삿갓 사초, 청사초 및 섬싸리냉이등 채집. 6월 15일 1,500미터 고지 8월에는 600미터 고지를 살핌.

1914년(41세) 8월 15일에 1차 세계 대전 발발로 프랑스의 소집명령을 받고 대구에 도착하였다. 11월 소집이 연기됨.

1915년(42세) 3월 2일에 징집면제, 이 시기 흥로 성당에 재임하면서 목포 산정동 성당과 나주 계량동 성당에서도 사목활동 함. 6월 7일에 목포 산정동 성당의 5대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다. 10월 16일에 돌비앙(Dolbien)에 의해 재징병 검사. 11월 5일 병역 면제.

1916년(43세) 1915년 6월 7일에서 1916년 8월 6일까지 목포, 무안, 나주, 진도, 장성, 영광, 해남, 완도에서 선교함. 1916년 8월 7일에서 1922년 9월 30일 까지 제주도에서의 포교 겸무하였습니다. 1922년(49세) 8월 6일에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 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사제 양성 및 식물의 육종개량 연구 함. 9월 26일에 은경축 행사를 가짐.

1928년(55세)10월 23일 페네 신부 후임으로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 3대 교장으로 취임. 1940년 6월 25일까지 근무함.

1933년(60세)10월 30일 회갑잔치. 1940년(67세) 7월 20일 고령으로 교장을 사임한 후 평교수로 근무,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와 성영회 책임신부로 활동함.

1945년(72세)5월 8일에 대구 동구 대명동 2433번지(현 대건 고등학교)에 은거함. 1948년(75세) 8월 1일 5월 8일 대구에서 파리외방 선교회 완전 철수, 타케신부는 인사이동으로 교구청 근무.

1950년(77세) 8월 6.25전쟁으로 인해 포항으로 피난. 10월에 다시 대구로 돌아옴. 1952년(79세) 1월 27일에 대구신학교 침실에서 심장마비로 임종.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묻힘. 1964년 12월 15일에 대구 교구청 화재 발생으로 대구 천주교 주교관 내 도서관에 보관중이던 식물표본과 식물 분류학 관계 문헌 자료들 소실됨

4. 에밀타케의 선교 활동에 나타난 영성적 고찰³⁴⁾

타케 신부가 돌아가신지 약 67년이 되었지만 식물학계나 가톨릭 안에서도 선교자로서, 교육가로서, 특히 식물학자로서의 타케의 업적과 공로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의 소실이나 부족도 문제지만 식물학계나 종교계 어디에서도 에밀 타케 신부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심지어 아직까지 에밀 타케 신부는 기념비조차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인 에밀 타케는 쇄국정치로 쇠락해가는 조선 말기 농민들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려 하였고 일제 식민통치하에 서서히 사라져가는 한민족 공동체 안에서 구원사업을 펼쳤다. 그에게 조선은 또 하나의 조국이자 마지막 종착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가 1898년 조선 땅에 입국하여 1952년 선종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지만 고향 프랑스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성소의 요람인 파리외방전교회에서의 삶은 전혀 담지 못했다.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에밀 타케 신부의 선교 여정을 조명하고자 했다. 그 여정 속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된 에밀 타케 신부의 모습들을 몇가지 영성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케리그마(복음화)의 차원

무엇보다 에밀 타케 신부는 당시 뮌텔(민덕효, 1854~1933, 제8대 조선대목구장)에게 보낸 18편의 서한 모두에서 자신이 ‘교황 파견 선교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을 문명의 종교인 천주교로 개종시켜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는 것을 ‘문명화의 사명’이라 믿었고, 이것은 19세기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시대정신이기도 했다. ³⁵⁾

타케 신부가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총 55년이다. 대구에서 교육자로 31년을 지냈고, 제주도에서 선교사와 식물 채집가로 13년을 지냈으며, 남도에서는 목포와 나주 지역을 포함해 섬들과 내륙의 수많은 공소에서 7년을 지냈고, 부산과 진주, 마산에서 4년을 지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타케 신부는 징집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두 번 다시 프랑스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결국, 조선에 입국한 후 한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구 남산동에 묻혔다.

34) 앞의 책, p 5-7 참조.

35)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서 함께 선교를 펼쳤던 독일의 성베네딕도 수도회와는 선교의 목적이나 방법에서 크게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밀 타케 신부보다 13년 뒤에 조선에 온 성베네딕도회 총아파스 노르베르트 베버(1870~1956) 신부는 조선과 조선 사람들의 독창적인 전통과 문화를 깊이 존중하려 했으며, 또 소통하였다.

1899년 6월 29일, 첫 소임지 부산본당에서 에밀 타케 신부는 약 1년간 사목하다가 진주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게 된다. 타케 신부가 진주로 갈 것을 자원했고, 주교에게 진주본당 설립을 건의했던 것이다. 부산에서 진주를 거치면서 에밀 타케 신부는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선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타케 신부는 영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유를 들어 결국은 자원해마지 않았던 진주를 포기하고 항구도시 마산포로 선교의 축을 옮기게 된 것이다.

훗날 그는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적응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제주도 선교를 포기하고 마산포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무세 신부와 비교해 성공적인 선교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신축교안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서 13년, 그리고 목포에 축을 둔 전남권에서 7년 동안의 선교 사목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부산, 진주, 마산, 동막골, 통영, 함안, 고성 등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타케신부는 1898년 1월 5일 조선에 도착해 만 3년 동안 부산, 진주, 마산포에서 선교 실습을 하고, 1902년 4월 20일 라크루 신부와 동반해 마산포를 떠나 탐라국 제주도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³⁶⁾

2) 공동체의 차원

1902년 4월 20일 에밀 타케는 서귀포 하논본당(한논본당이라고도 함) 제3대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아 마산포에서 제주 하논으로 가게 된다. 하논본당은 1900년 6월 12일에 설립된 제주 산남 지역 최초의 성당이다. 1902년 6월 27일에는 서흥동 흥로본당으로 이전했다가 1937년 8월 15일, 지금의 서귀포성당으로 이전 정착한다.

『수신영약』은 1901년에 집필한 것으로 총 43장 분량인데 천주교 교리의 특징, 천주교에 대한 제주민들의 의식, 제주도 풍습과 미신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신영약』의 내용은 제주도 민중과 그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었고, 지역 및 향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주도 지역 사회는 방성철의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화전세 징수에 대한 화전민에 대한 불만, 지역 사회의 배타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 일부 신자들이 치외법권적인 신부의 특권을 남용함에 의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 서구 우월주의에 따른 제주 고유신앙 세력과의 충돌, 성직자들의 지나친 간섭과 전교 우선주의 등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러한 요소가 세금 징수관 강봉헌이 신자들을 이용한 강압적인 세금 징수로 인해 결국 신축교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신성학원 100년사』, 32쪽

36) 앞의 책, p 13-22 참조.

김 신부는 1901년 4월 사제피정으로 서울에 갔다가 5월에 하논성당에서 발생한 신축교안 소식을 듣게 된다. 뮌헨 주교는 김신부가 다시 하논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뮌헨 주교가 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혹은 신축교안에 대한 문책으로 그렇게 조치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선교의 방법에서 토착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나아가지 못했다. 해당 선교 지역의 관습과 문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통찰을 강조하였던 예수회의 선교 방식과는 대조를 이룬다.³⁷⁾

김원영 신부의 미간행 저서인 『수신영약』 또한 일종의 호교서이자 교리책이지만 제주민들의 삶의 뿌리인 풍습, 관습, 생활양식, 신앙체제를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루아침에 천주교의 신앙으로 바꾸려 하다가 결국 교안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교황청 포교성성의 훈련을 반영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지침인 ‘모니타’를 보면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구원을 통한 사도직의 성화, 둘째는 비신자들의 개종, 셋째는 교회 조직의 건설이었다. 『수신영약』은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하라는 모니타의 또 다른 중요한 지침은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유럽적인 신앙관습을 이식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파리외방전교회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김원영 신부는 일곱 번째 한국인 사제로 하논성당을 신설하고 『수신영약』으로 전교의 뜻을 세웠다. 그러나 김원영 신부의 호교적인 선교와 ‘조셉 빌렘(홍석구, 1860~1938) 신부’의 공격적인 선교는 결국 당시 조선 사회에 뿌리내린 척사양미와 충돌하며 ‘신축교안’(1901년)과 ‘해서교안’(1902년)을 불러왔다. 빌렘 신부는 일제강점을 조선이 근대화 혜택을 누리게 된 하나의 계기로 보는 당시 선교사들의 입장을 견지했고, 안 의사는 독립전쟁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일제강점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달랐고, 각자의 길을 갔다.

신축교안은 천주교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대한민국의 안중근 토마스는 테러리스트로 단죄 받아 일본으로부터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당했다. 안중근 의거에 대한 뮌헨 주교의 태도는 정교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1919년 3월 대구교구의 성 유스티노 신학교 신학생들의 만세시위에 대해 퇴학과 학교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신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했다. 선교사들이 친일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포교성성 훈령의 정교분리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37) 파리외방전교회는 1658년 7월 29일에 창설하여 현재까지 361년을 이어오고 있는 선교단체다. 조선에 온 프랑스 선교사들은 프랑스의 국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였고,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1883년)처럼, 일본이 조선을 지배(1910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여기에 항거한 선교사는 거의 없었다. 가톨릭 선교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원주민의 반야만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 합법적인 결혼을 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 뮌헨 주교의 보고서들을 보면 신축교안은 영혼구령 ‘쿠라 아니마룸’의 가치관과 제주도의 ‘전통과 풍속’의 가치관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뫼텔 주교는 조선 제8대 교구장으로, 1891년 2월부터 1911년 3월까지 조선 교구장으로, 대구교구가 분리된 1911년 4월 8일부터 1933년 1월까지 서울 교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가톨릭의 기초와 바탕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뫼텔 주교의 정교분리 종말지향의 내세관은 조선의 신자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이런 태도는 지금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제주 신축교안을 해결하는 과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었다고 진단된다.³⁸⁾

초기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근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성속 이원론에 토대한 초월주의 신앙 유형 및 내세주의 신앙은 사회 문화 활동의 폭을 크게 제한하였다. 또한 문화적 우월주의적인 태도와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행세는 그들이 전개하는 그 나마의 활동도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나 내재적 요구, 그리고 역사적 현실과는 유리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주도하는 개화기의 한국교회는 교회 정신과 단절되는 한편 민족사와도 단절되는 이중단절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게 됐다.

조선이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뫼텔 주교와 은총의 역할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안세니즘과 엮이지 않았다면 한국 가톨릭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안세니즘은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원죄 이후의 죄 많은 인간을 강조하며 인간성과 몸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부정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엄격성과 보수성을 강조하다 보니 초월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세니즘은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에 의해 1653년 이단설로 판정받았다.

뫼텔 주교는 40여 년간 한국 천주교회를 다스렸고 이 기간 동안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영적 물적 그림자를 깔아 놓았다. 가톨릭 신앙 안에 총체적인 '생태영성'이 통합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나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세(문제만, 1876~1957) 신부는 김 신부의 갑작스런 전임으로 1900년 서품을 받고 1901년 5월 첫 사목지인 제주도 하논 성당에 부임했으나 5월 5일에 발생한 신축교안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신축교안의 충격과 깊은 아픔으로 무세 신부는 교구장 뫼텔에게 거듭 전임을 요청하여(1901년 6월 18일 서한, 1902년 3월 3일 서한) 결국 마산본당으로 떠나게 되었다.³⁹⁾

38) 1911년 2월 21일, 뫼텔 주교 자신이 독일에 가서 조선 학교 진출을 위해 직접 초대된 베네딕도회 총장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두 수도회의 리더는 조선 선교에 있어서 선교 방법과 목적이 전혀 달랐다. 한쪽은 오직 개인 영혼구령만이 구원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한쪽은 뼈저리게 가난했던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를 통한 영혼구령이라고 믿었다.

39) 앞의 책, 29-44 참조.

3) 대화적 차원

타케는 제주도에 오기 전 1898년부터 부산, 밀양, 김해, 진주, 거제, 그리고 마산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가 졸지에 제주도 하논에 오게 된 이유는 신축교안으로 상처를 받은 무세 신부가 의욕 상실로 하는 성당에서의 사목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자 주교로부터 인사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김 신부는 하논에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됐고, 무세 신부는 하논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타케 신부가 하논에 가게 된 것이다. 타케 신부는 하논 성당에 부임한 즉시, 한라산이 잘 보이고 하논 분화구에서 가까운 서흥동 홍로로 성당을 옮겨버렸다. 신축교안으로 만 신창이가 된 하논 성당을 서흥동 홍로성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판을 만든 것이다. 40)

어쨌든 이로써 타케 신부는 하논본당 시대를 끝내고 13년 사목생활을 하게 되는 홍로본당 시대의 막을 열었다. 1903년에는 30명의 영세자가 있었고, 200여 명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04년에는 성인 3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1905년에는 157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1909년까지도 제주도에겐 겨우 두 개의 성당만 있을 뿐이었고, 공소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도 신자는 불과 349명에 지나지 않았다. 교세의 확장은 매우 더딘 것이었지만, 대학살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혈맥이 딱딱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걷어내며 제주민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⁴¹⁾

또한 그의 선교활동 업적 가운데 두드러지는 점은, 타케 신부의 식물 채집 행적이 등장하는 이 서한으로서 그래서 귀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이 자료를 보면 타케는 포리 신부의 수제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포리 신부는 초창기 일본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일본 파견 선교사였다. 포리 신부는 생애 대부분을 일본에서 활동했으며, 조선을 세 번 방문해 서귀포 홍로성당의 타케 신부에게 선교 외에 식물 채집과 표본 제작 방법도 전수하였다. 포리 신부는 1900년대 초, 한국 식물분류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에는 아오모리현에 그의 이름을 딴 사과와 성당 우표가 남아 포리 신부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에는 타케 신부의 서한 18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11통이 홍로에서 작성된 것인데, 서한 중에는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 부임하자마자

40) 1902년 6월 17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타케 신부는 빗을 내어 하논에서 5리 떨어진 서흥동 홍로에 집 한 채를 얻어 성당을 옮겼다. 신축교안으로 하논본당 신자 수는 187명에서 35명으로 격감했고, 흥흥한 민심에다가 흥년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타케 신부의 주머니는 늘 적자여서, 뮌텔 주교에게 자주 돈타령을 하곤 하였다. 타케 신부의 고백에 의하면 빗이 330 피아스트르라고 하였다.

41) 1911년 대구대목구가 생기면서 제주도는 대구대목구에 병합되었고, 타케 신부도 대구교구에 소속됐다. 타케 신부는 1915년 6월 목포로 발령이 났고 라크루 신부도 제주를 떠났다. 타케 신부는 제5대 본당 신부로서 목포성당(1915~1922년)을 책임지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제주도 홍로공소와 남서부의 노안성당을 돌보았다. 그리고 전남 지역과 목포의 수많은 섬들의 사목 방문을 빼놓지 않았다.

하논에서 홍로로 본당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도 있다. 사실 그 당시 제주도 안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프랑스 군함도 출병해 있었다. 그 군함들은 선교사들의 든든한 심리적, 외교적, 물적 지원 부대였음이 틀림 없다. 프랑스 함대가 출병한 것은 박해 종식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선교사 보호 차원의 종교적인 것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정책은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과 관계되어 있었고, 선교사들도 자연히 자국의 제국주의 외교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 앞바다에 등장하는 프랑스 함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는 왕이 내린 신표를 가지고 있었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천주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이 권력에 편승하여 신앙과 무관하게 입교하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른바 ‘갑질’은 신축교안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타케 신부의 18통의 서한에는 공소를 매입한 것, 이교도와의 갈등, 신축교안 희생자 장례식, 식물 채집, 홍로본당 성사 내역표와 같은 교세 현황까지, 일종의 사목 보고서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 서한을 보면 타케 신부는 제주도 홍로본당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목지였던 부산, 진주, 통영, 함안 등에서는 식물 채집에 대한 관심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식물 채집을 하게 된 동기는 역시 일본의 전설적인 식물 채집가 포리 신부와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서한에서 식물 채집이 언급된 날짜는 1908년 1월 6일이다. 포리 신부의 식물도감에 대한 지적도 이 서한에서 나온다. 포리 신부는 1906년과 1907년 제주도 홍로본당에서 타케 신부를 만났다.

그 당시, 59세의 포리 신부와 33세의 타케 신부였으니 파리외방전교회 안에서는 선후배 신부라기보다는 마치 부자간 같았을 것이다. 포리 신부는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세 번 온 걸로 기록되어 있다. 포리 신부는 1901년 5월 3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대마도, 나가사키를 거쳐 5월 22일 서울 남산, 진남포, 북한산, 인천, 연변, 평양, 강원도, 원산, 부산, 목포 등지에서 10월 초까지 머물다가 부산을 통해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서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고 한다.⁴²⁾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홍로성당은 흙돌담, 즉 제주도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쌓은 초가집의 원시성으로 아주 소박했음에 틀림이 없다. 홍로성당 설립 당시 신자 20명으로 시작한 이 소박한 땅에서, 검은 수단을 입고 긴 수염에 파이프 담배를 지닌 타케 신부가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동네를 오갔을 것이

42) 포리 신부는 1901년 5월 3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대마도, 나가사키를 거쳐 5월 22일 서울 남산, 진남포, 북한산, 인천, 연변, 평양, 강원도, 원산, 부산, 목포 등지에서 10월 초까지 머물다가 부산을 통해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서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고 한다.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⁴³⁾

1904년 타케 신부는 성인 35명을 영세시키는 기쁨을 누렸고 미사를 드릴 만한 공소도 몇 곳에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1909년 제주도는 두 개의 본당과 349명의 신자 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굉장히 느리지만 발전적이였다. 그리고 타케 신부는 산속에 또 하나의 공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포리 신부가 타이베이에서 1915년 7월 4일 갑자기 병으로 별세하자, 타케 신부 또한 선교의 도구로 활용했던 식물 채집을 내려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로 성당은 1915년 6월 7일 에밀 타케 신부가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전임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1922년부터 제주와 전남에서 파리외방전교회가 철수하게 되자 에밀 타케 신부는 대구신학교에 교수신부로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8월 15일 서귀포본당이 하논과 홍로를 거쳐 현재의 서귀포성당으로 이전하면서 하논과 홍로성당은 역사의 한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에밀 타케 식물원 격이었던 홍로본당 시절의 사제관과 소성당은 애석하게도 1967년 1월에 철거되었다. 서귀포의 옛 홍로서당 터에는 지금 면형의 집이 자리하고 있다. 홍로성당은 타케 신부가 1915년 목포성당으로 전임된 뒤 공소로 바뀌었다가 이후 한국순교복자수도회에서 관리했다.⁴⁴⁾

4) 예언적 차원

1908년, 드디어 타케 신부는 포리 신부의 코칭 없이 혼자 힘으로 해발 600미터 지점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해,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 쾨네(1849~1918) 교수에게 표본(채집번호 4638번)을 보낸다. 발견 장소는 한라산 북측 관음사 뒤쪽이라는 것이 일반적 정설이다. 또한 100년 동안 참혹한 박해 속에 옹기를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선조 교우들의 가난을 체험한 타케는 성당을 짓고 영세만 주는 것에 부족함을 느꼈기에 식물 표본을 만들어서라도 선교 자금을 만들었다고 본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도토리라도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타케는 굴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융합하기 위해 포리 신부에게서 굴 묘목을 받았던 것이다. 타케 신부는 그 지역의 문화나 습성, 그리고 생태와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에 비해 김원영 신부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과격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하여서 결국 신축교안이 발생했던

43) 그리고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크루 신부는 1909년 10월 18일 오늘날의 초등학교 격인 신성여학교를 세우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교를 세우려고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산포에 주임신부로 소임 받은 무세 신부가 1910년 9월 초등교육기관인 '성지학교'를 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신성여학교는 라크루 신부가 전임되고 난 뒤 1916년에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 등이 겹쳐 폐교되었다가 1946년 스위니(1895~1966) 신부에 의해 '신성여자중고등학교'로 복교되었다.

44) 앞의 책, p 49-74 참조.

것이다. 45)

위르뱅 포리⁴⁶⁾는 1847년 1월 1일, 프랑스 남쪽 리옹의 서남쪽 약 64킬로미터 떨어진 구릉지대 푸이 교구 뒤니에르에서 태어났다. 포리 신부는 선교사 보좌신부로서의 일본 선교활동은 요코하마에서 시작했지만(1873~1882) 파리의방전교회 연보에 따르면 1873년 가을에 교황대사가 에브라르 신부와 함께 포리 신부에게 니가타에 성당을 세워보라고 파견했다. 그러나 포리 신부의 니가타에서의 선교활동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 선교사의 꿈이 비참할 정도로 좌절됐고, 선교의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포리 신부는 절망하였다. 특히 이방인 선교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달혀 있는 태도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고, 선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엔커녕 차가운 도시 니가타를 보며 울었다고 한다.

하코다테 교구소사에 의하면 1874년 포리 신부가 일본인에게 선교를 하려고 애썼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 비탄에 빠져 있었을 때 ‘식물을 채집하라’라는 계시 같은 영감이 떠올라 채집을 시작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채집을 해나가다 보니 점점 몰입하게 되어 구체적으로 식물 채집에 대해 배워가게 됐고, 그로 인해 더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포리는 마치 선교를 하듯 식물 채집을 하는 세계적인 식물 채집가 신부가 되어 있었다. 포리 신부의 식물 채집은 당시 선교의 실패에 따른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스럽게 절박함과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타케 신부와 달리 포리 신부는 니가타에서의 선교의 좌절이 뜻밖에도 식물 채집에 대한 영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 포리 신부는 예비자들에게 영세를 주거나 강론하거나 냉담 중인 신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극과 극을 종횡무진하며 선교 현장을 다녔다. 포리 신부는 선교의 실패를 맞본 니가타보다는 선교가 잘되는 아오모리현과 삿포로 지역에서 확실히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오늘날 삿포로에는 포리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던 초기 신자들이 만든 기타히로시마 공소 등 10개의 공소가 존재한다.

청일전쟁(1894~1895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일본에서 서

45)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 식물학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식물분류학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한국 식물 연구사에 있어서 타케 신부와 포리 신부의 식물 채집 기록은 1890년대 코마로프(1869~1945, 구소련의 식물학자로 그의 이름을 딴 코마로프 식물 연구소가 2015년 12월, 1886년~1902년 사이 전 구한말 시대의 한국 관속식물 표본 100여 점을 기증)와 1909년 나카이(1882~1952, 일본 식물학자로 한국의 식물 조사와 식물 자원 수탈에 행적이 많은 인물)가 『Flora of Korea』를 발표하기까지의 빈 시간대를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6) 포리 신부는 1873년, 26세의 나이로 서품을 받자마자 8월 21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메이지 초기부터 수많은 활동을 펼친 전설적인 외국인 식물 채집가였다. 포리 신부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쿠릴, 사할린, 홋카이도 지방 등에서 선교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였으며, 채집한 식물을 전세계의 식물학자들에게 보내어 일본 초창기 식물학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식물학자이기도 하다. 1915년 대만에서 채집 중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별세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68세였다.

양인 선교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포리 신부는 여전히 열정이 넘쳤지만 인간 선교에서 식물 선교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포리 신부는 1915년 68세에 뇌출혈로, 타케 신부는 1952년 79세에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선교사로서나 식물학자, 그리고 식물 채집가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두 신부는 식물학적 기초나 식물분류학을 전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식물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식물 채집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 두 신부가 채집한 많은 표본들이 전 세계의 주요 연구실에서 표본으로 활용되고 공유되고 있다.

포리 신부는 1901년, 1906년, 1907년, 1910년 이렇게 네 차례 조선을 방문해서 활동했는데 1906년과 1907년에는 서귀포 흥로성당에 있었던 타케 신부와 함께 한라산 식물 채집에 집중하였다.⁴⁷⁾ 포리 신부와 에밀 타케 신부는 모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었지만 활동 부대는 달랐다. 포리 신부의 주 활동 무대는 일본 전역이었지만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조선, 대만, 하와이, 사할린 등 더 넓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다. 선교사로서는 포리 신부보다도 타케 신부가 조선에서의 선교 소명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리 신부는 조선에서 선교하고 있던 타케 신부에게 현장 중심의 본격적인 식물 채집 방법들을 전수했다. 포리 신부가 처음부터 식물 채집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식물 채집을 시작한 것은 1874년 봄부터 여름 동안이었다. 처음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채집하였으나, 그 후 동물 채집은 그만두고 식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왕성한 식물 채집 활동을 한 식물학자 포리 신부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타케 신부는 마산과 진주에서 첫 선교를 할 때에도 제주도 하논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도 선교 자금이 너무 부족했다. 워털루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을 읽어보면 타케 신부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주교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호소했다. 타케 신부는 선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식물 채집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포리 신부는 식물 채집이 전부였지만 타케 신부에게 식물 채집은 시한부였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떠나면서 식물 채집도 손을 놓았다.

47) 포리 신부는 흥로성당에서 선교하던 타케 신부에게 식물 채집 방법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에도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포리 신부가 한반도에서 채집한 식물 대부분은 일본으로 건너갔고 채집품은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매각되어 선교활동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포리 신부는 일본의 천주교 박해의 후유증과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선교활동이 점점 어렵게 되자 자신의 열정을 식물 연구에 더욱 쏟았다. 또 그 무렵 홋카이도에서 야생 사과나무를 발견한 그는 유럽에서 가져온 다양한 사과나무 종에 그것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놀랍게도 접목시킨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맛이 매우 좋았다. 이 신품종 사과나무는 이후 일본 전역에 심어져 포리 신부에게 새로운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타케 신부는 1906년 홍로에서 포리 신부를 만난 뒤부터 1907년을 거쳐 1908년까지 온 힘을 다해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했다. 그리고 1913년 제주도 밖으로 나와서 목포와 인천의 식물을 채집한 것이 제주도 외 채집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는 거의 식물 채집에서 손을 떼는 듯 어떤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포리 신부는 두 번째 대만 방문인 1915년 6월까지 평린에서 생애 마지막 식물 채집을 하였다. 포리와 타케는 참으로 비교되는 인생을 살았다. 포리 신부가 식물 채집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면 타케 신부는 선교로 불꽃 같은 삶을 산 것이다.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는 똑같이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한솔밥을 먹고 선교사가 됐으며, 또 그 종교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두 신부는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만행을 종교와는 분리시켰고, 일본을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영혼 구령 선교 속에 식물 채집을, 또는 식물 채집 속에 선교를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만의 역동성과 잠재적 창조성으로 동아시아 식물 연구에 커다란 자취와 의미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⁴⁸⁾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처음부터 식물 채집가가 된 것은 아니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과 1896년 교민조약 이후의 정교분리 정책 등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포리 신부와와의 만남은 타케 신부를 자연스럽게 식물 채집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이방인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인내와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던 일이었다. 식물 채집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의 정교분리 정책에서 나온 선교사의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1898년 부산본당의 3대 주임신부였고, 1899년 진주본당 설립에 이어 1900년에는 마산본당 초대 주임신부를 거쳤던 타케가, 1902년 4월 20일 하루아침에 제주도 하논본당의 주임신부로 오게 된 배경에서도 사실 식물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저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게 얽혀 타케를 제주도에 데려다놓은 것이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하는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하지만 만약 1899년 제주도가 오로지 초월을 추구했던 파리외방전교회와 엮이지 않았다면 신축교안이 일어났을까? 물론 가정일 뿐이고 시간은 비가역적인 것이지만, 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포리 신부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신의 성사인 창조의 책을 통해 이 우주에는 자연의 법칙이 탑재되어 있고, 자연은 신의 섭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48) 일본의 포리 신부 경우에는 자신이 식물학자라는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여 아오모리현을 다니면서 채집한 식물 표본을 유럽과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매각했다. 그 자금으로 사제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9개의 새 본당을 세워 교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타케 신부 역시 포리 신부의 충고를 받아들여 식물 채집을 시작했을까?

것이다. 전혀 다른 가치인 선교와 식물 채집을 통합한 영성은 우리를 인류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체적인 시선으로 더 큰 맥락을 보게 한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이 변화는 세상에 영감을 주는 비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포리와 타케의 삶은 21세기의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것은 창조를 신을 교회라는 표본 속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다. 포리 신부는 1907년에 세 번째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때 쿠살냥을 채집작업하여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49)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선교자들의 군대 소집으로 여러 본당의 주임 신부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구교구 교구장 드망주 주교는 제주 서귀포 흥로 성당에서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에밀 타케 신부를 발령냈다. 징집 면제를 받은 타케 신부를 통해 공석이 된 여러 본당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에밀 타케 신부의 공식적인 식물 채집활동은 1906년 시작해 1913년에 매듭지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타케 신부는 1922년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로 가기 전에 전쟁에 동원된 카다르 신부의 목포 지역 후임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역시 전쟁에 동원된 계량성당 주임신부 카다르의 임무까지 맡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자리를 지켜야 했다.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은 1922년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철수했으며, 1931년에 전라도가 대구교구 감목대리구로 승격됐지만 2년이 채 되기 전에 드망주 주교는 전라남도 지방을 성골롬반외방전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계량성당은 카다르 신부가 세계대전에 소집됨으로써 제대할 때까지 5년 동안 목포 산정동 성당의 에밀 타케 신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 1919년 프랑스에서 계량에 다시 돌아온 카다르 신부는 중단됐던 공사를 마무리했고, 장성, 영광, 함평 답정리, 나산, 나주 봉황면 등에 공소를 열었는데, 당시 교우 수는 300명이었다.

1911년부터 1930년까지 대구교구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관리했고, 전라도는 제주도를 포함했다. 1931년 5월 10일, 즉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에 대구교구장 드망주 주교가 교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받고 전라도 감목대리구를 설정했다. 1899년과 1931년 사이에 타케 신부의 선교활동은 목포, 계량(노안), 제주, 흥로, 이 네 본당과 이들 본당의 공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젊은 선교사들이 전쟁에 소집되면서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도 하논-흥로본당을 떠나 목포 산정동성당-나주 계량본당(현 노안본당의 전신)-남서해안 모든 섬들의 공소를 겸임해 선교 사목을 묵묵히 수행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 프랑스 선교사 대부분이 징집되는 바람에 제주성당과 흥로성당은 성직자 없는 공소의 시기가 6년 동안 지속되었다. 게다가 가난한 제주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떠났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신성여학교가 휴교되는 등 제주도 천주교는 침체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49) 앞의 책, 77-160 참조.

1922년 파리외방전교회가 전남과 제주에서 철수하자마자 그해 8월 25일부터 대구교구 소속이었던 에밀 타케 신부는 거의 20년 동안 선교한 제주와 목포를 떠나 1914년 설립한 대구교구 성유스티노신학교에 교수신부로 부임하여 한국인 신부 양성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타케 신부는 1928년 10월 23일 성유스티노신학교 3대 교장으로 선임되었고, 1933년 10월 30일 회갑잔치를 하였으며, 1952년 1월 27일 성유스티노신학교에서 선종하였다.

타케 신부는 18년 동안 대신학교 교수신부로 있으면서 12년은 대신학교 학장으로 일하였다. 1964년 12월 15일 대구교구청에 화재가 발생해 에밀 타케 신부의 유물과 많은 표본과 관련 문헌들이 다 소실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타케 신부의 귀중한 표본은 우리나라에는 단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1940년 7월 타케 신부는 신학교 학장직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 여기고 사임을 했다.

24세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본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에밀 타케 신부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친일 행태를 어떻게 느꼈을까? 뮌헨 주교나 1933년 드망주 주교가 교회와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 허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을 에밀 타케 신부는 인정했을까? 그에게 닥친 고통은 신사 참배로 끝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포항 오천 예수성심시녀회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타케는 한 달 동안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무서운 전투를 목격하였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10월 1일에야 다시 신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타케 신부는 침구류는 물론 속옷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로 오직 남은 것은 하느님밖에 없었다.

타케 신부⁵⁰⁾는 조선 남서해안의 모든 섬들은 전담했습니다. 그의 직무수행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허술한 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통용되는 방식이 이곳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방식이 매우 피곤하기는 하였지만, 빌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오래 묵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감당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할 수 없는 침착함과 인내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타케 신부는 다행히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무지한 까닭에 죄를 범하는 이 불쌍한 섬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관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정신상태는 불가해

50) 중기선을 타고 14시간 걸려 도착한 제주도는 10년 동안이나 라크루 신부와 타케 신부에게 굳건한 덕성과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대학살이 있었던 1901년부터 주의 은총이 재난으로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난 이후 몇몇 여인들과 어린이들만이 그곳에 남았지만 현재는 교리도 잘 배우고 수계도 잘하는 교우 수가 400명이나 됩니다. 두 신부는 매우 진지해 보이는 1,500명의 예비자들을 등록시키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합니다. 주교님도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려고 진력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는 그들이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압니다. 진실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지는 못하고 정신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됩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그들을 알 수 있는 신부와 의 충분한 접촉입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그들을 알 수 있는 남녀회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교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곳 공소에서 살고 있는 회장들, 즉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교우들로서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선교사는 배로 여행하기도, 여인숙에 오래 묵는 것도 매우 힘드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순회 여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불과 몇 사람에게 성사를 베풀 뿐이라 하여도, 각 공소에서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섬과 이웃 작은 섬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통지가 전달되어 저에게도 달려올 시간과 돌아갈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을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노력과 재력, 그리고 많은 실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들 아름다운 섬들을 좋은 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에밀 타케 신부는 목포, 무안, 장생, 영광, 함평, 해남, 완도 등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그리고 특히 그 오지의 섬(자은도, 하의도, 안창도, 추자도를 포함하는 98개의 섬)에서 선교하는 태도와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다. 1876년 개항과 1886년 한불조약으로 프랑스 함대의 비호 아래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선교활동을 했던 프랑스인 조선 선교사의 시비지심과는 달리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측은지심의 깊은 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프랑스인 에밀 타케 신부가 자신의 문화적 우월감을 내려놓고서 조선인과 공감하려는 마음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에밀 타케는 명상에 몰두하고, 고매한 인격을 지녔으며, 의복 등에 사치함이 없고, 항상 프랑스식 둥근 검은 모자에 파이프담배를 즐겼으며, 검붉은 긴 수염에 홍안백발이며, 중키의 강건한 체력을 가졌다.”고 한다. 회갑 후 1940년 7월 타케 신부는 대신학교 학장직을 스스로 사임한 후 평교수로 지냈다.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타케 신부의 평소의 덕망을 보여주는 자세이다.

1944년 일제의 압력에 의해 대신학교는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에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1945년 2월 일제에 의해 폐교되면서 일본 육군에 의해 징발되었다. 그 무렵 그는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지도신부로 지낸다. 1948년 대전 교구가 생기면서 파리의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재편하였으나 타케 신부는 대구에 남는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난청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대신학교 한편에서 지냈다. 타케 신부는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식민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선교사’임을 보편적인 선교 방식으로,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⁵¹⁾

포리 신부가 일본에서 선교사로서의 삶보다 식물 채집가로서 역할이 더 강하게 무각되는 것은 포리 신부 자신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당시 일본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리 신부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삶보다 식물학자로서의 일이 더 우선이었고,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로 인한 선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반면에 타케 신부가 식물 채집가로서의 일보다는 선교사로서 평생을 수행한 데에는 조선인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삶의 자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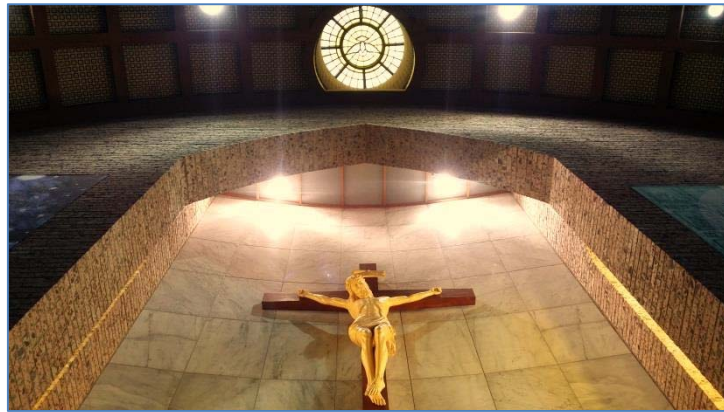
무엇보다 에밀 타케 신부의 선교 사목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 즉 마산이면 마산, 홍로면 홍로, 섬이면 섬, 한라산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선교사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본질로 살아갔던 것이라고 본다. 에밀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평정과 인내 속에,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아름답고 소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하며 ‘치유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인 에밀 타케 신부가 한라산의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한 것은 왕벚나무를 포함한 생명의 다양성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생태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⁵²⁾

에밀 타케 신부는 한국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의 어떤 선교사보다도 독창적인 민낯을 가진 선교사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한일병합 전 1898년에 입국해서 한국전쟁 2년 뒤인 1952년에 조선 땅에 영원히 묻혔다. 에밀 타케 신부는 대단하고 대담한 조선의 선교사로, 조선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섬세하고 조용하게 조선에 융화되었다. 타케 신부는 식물 수집가라는 껍질 선교사가 아니라 평생을 조선의 진짜 선교사로 살았던 인물이다.⁵³⁾

51) 에밀 타케 신부는 하느님뿐이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로서 온갖 두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에밀 타케 신부는 1897년 9월 27일 한국으로 가야 할 운명이 미리 정해진 채서품을 받은 후, 식물 채집만 했던 식물분류학자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뿐이라는 신앙’으로 선교의 일기관지로 한라산을 오르며 식물 채집을 했을 것이다. 베르만의 탐사나 선교사들의 채집 역시 미지의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의 박물학 연구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지만 에밀 타케 신부의 활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선교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물론 타케 신부가 채집한 수많은 표본은 현장 선교활동을 위해 일부 매각되기도 했다.

52) 앞의 책, p 165-244 참조.

53) 위의 책, p 235.



천주교 제주교구 **성귀포성당**

